

山嶽

江河

柳邑

樓閣

亭榭

眺望

杜鏡

三言

分類杜工部詩卷之十三

山嶽

古詩三首

律詩三首

望嶽

岱宗夫何如齊魯青未了

岱宗은泰山이라○岱宗은

은엇제라齊와魯人사해프른비치못리아니하엇나니오

造化鍾神秀

陰陽割昏曉

鍾은聚也이라割은分也니

이迭為昏曉也이라○造化神秀호를외

盪胸生曾雲决昔入歸鳥

盪胸은層雲之氣也

歸處也一라○層層히나는구루에가스름
會當凌絕頂
覽衆山小모로애노프그테은아문

望嶽

南嶽配朱鳥秩禮自百王南嶽은衡山一오
祭祀라○南岳一朱鳥을配對호얏니歙吸
領地靈鴻洞半炎方라歙吸은神化一俱르시
○歙吸은이더우사햇半은기느렛고邦家用

祀典在德非馨香

書에 黍稷이 惟馨이라 非馨이라 明

라 해 석 祭祀 호 문 비 작도 德에 잇

巡守何寂

寮有虞今則止

虞舜이 巡守 南方 하 시 나라 巡守 하 요 미 조 피 외 하

니 有虞이

洎吾隘世網行邁越瀟湘

내 게

時世人法網이

渴日絕壁出漾舟清

내 게

光傍

渴 日은 言 望 日 之 出 如 渴 也 一 라 渴 望 下는 나 리 石 壁 에 矣 下 나 문은

祝融五峯尊峰次第昂

五峯

祝融이 어 노 라 祝融 五峯 尊峰 次第 昂은 祝
融 紫 盖 天 柱 石 廩 美 器 也 一 라 祝 融 다 은
빛 부 리 노 平 니 祝 부 리 마 다 次 第 로 구 브 며

을 위릿 **紫蓋獨不朝爭長** **業相峙**
爭長은言相峙而立

하니如相爭長也 라長은丁文反 라業은山高負이라

紫蓋은하늘로來朝하디야 **恭聞魏夫人群仙**

아구즈기서르비라호문드도

挾翱翔 魏夫人壇하니라 **○恭敬** 하야드르

魏夫人은문교仙人 **有時五峯氣散風如飛**

岬셔스스는다

霜 有時에다손윗부리옛氣運하디 **牽迫限**

脩途未暇杖崇岡歸來 **覿命駕沐浴休玉堂**

알피디나갈제길녀문비차이되해을아보

디못호니오늘야이되혜와쉬노라니라

라 ○ 산길티갈그지이쇼매브리들여노프
 미해막개디피올아불餘暇 | 엇다나도라
 을제술위메여타오물보아 三嘆問府主曷
 沐浴 하 아 正堂에 쉬유라
 以 贊我皇 嗟歎 하 아 府主는 指潭州守也 | 라 ○ 세번
 으스그로배우리 牲璧忍衰俗神其思降祥
 님금뎀스오리오
 구스름禮神 하 는 거시라言俗雖衰蔽 하 나
 忍修牲璧而祀神 하 면必降百祥 하 리 나이
 贊助 吾君之事 | 나 ○ 犧牲과 구스름衰
 俗은 大마 하 라 鬼神 | 祥瑞 나 리 오 물스랑
 하 리

丈人山

土詩

三

自為青城客不唾青城地不唾地是敬之也

그내외요므로부터青城為愛文人山丹

拂近幽意青城山在蜀郡為五嶽

다산有穴이通崑崙仙人張道古의隱

處이라○丈人山은為야스망文人祠西佳氣濃緣雲擬住

最高峰丈人祠西에아름다운氣運이뜻

리여가잇고掃除白髮黃精在君看他時冰

雪容黃精草을久服호면軀身延年호니

다藐姑射山에有神人호니肌膚一若

氷雪
○ 氷雪하니 이눈도 모 제문야
○ 쉼어리물쓰러비 릴黃精이 잇스니 그 디
○ 다름별氷雪 又
○ 양 두물보라

望嶽

西嶽峻嶒竦處尊諸峯羅立似兒孫西岳은

라峻嶒은重疊貞 | 라言諸峯이羅列其下

| 如兒孫之侍父祖也 | 니라○西岳 | 노

파구즉하하이尊하니여러빛부

리버러셔시니兒孫이근도다 安得仙人

九節杖拄到玉女洗頭盆列仙傳에有九節
蒼藤竹杖하니카

華山上에有石盆하니可容水數斛이니俗
呼玉女의洗頭盆이라○엇테仙人의아름

어리 깃는 盈에 니르리 가려요 車箱入谷無

歸路箭括通天有一門 車箱谷은 深不可測

금기 잇는 니하늘 보는 니라 車箱人고리

드러는 갈길 히 업스니 箭括 안하늘 해스리

잇는 니라 稍待秋風凉冷後高尋白帝問真

源 白帝은 西方之帝라 ○ 高은 尋 리 이 시를

眞實人 查흔 무로리라 眞實人 查흔 무로리라

白鹽山 在夔州 하 나라

卓立群峰外 蟠根積水邊 뜻기 쉬고 답사흔

물고이불휘他皆任厚地爾獨近高天되니

다든거운사흔므틴히너갓기논白榜千家

邑清秋萬估船白榜은縣額을以白為牌也

뜻고이비와이쇼본니러니라○한額榜흔

노다비詞人取佳句刻畫竟誰傳欲用佳句

刻畫其形容하나終難傳播나甚言作詩

之不易也라○글흔사리미도흔곡句를

엇니니刻畫흔돈只태매뉴傳하가오

天寶初애南曹小司寇인舅一於我大

夫人入堂下아累土為山도一篲其에盈

尺야以代彼朽木야承諸焚香니茲瓦甌니

甌니甚安矣라旁植慈竹니蓋茲數峰

이 嶽岑嬋娟야宛有塵外數致시乃不

知興之所至야而作是詩호노라남호

臺로銘고니식기논이제假山링고라

香爐로銘고니라○天寶人치어의南

曹人小司寇人비슬호야자비우리어
아님집아래호른핀외화외호른링고로도
호그르세자히츠게호야비티서곤남
큰代호고香피우는구운甌를노호니

甌 | 甚히 便安호도 다하에 慈竹은 시
르히 드들 밧과 두어 景致이 실시 興의 니
르히 드들 밧과 두어 景致이 실시 興의 니

一簣功盈尺 三峯意出群
箒는 흙담는 그르
시라 호그르

功이 자히 처니 세 빛 부
릿 드이 자히 처니 세 빛 부
望中疑在野 幽處欲

生雲 幽深호 처한 구루미 나고 저호는 다
니 幽深호 처한 구루미 나고 저호는 다

慈竹春陰覆 香爐曉勢分
慈竹은 竹名이라니
即子母竹이라니

香爐의 봄고 논하 두핏나니 淮南將獻壽佳
香爐의 봄고 논하 두핏나니 淮南將獻壽佳

氣日氤氳 詩예 如南山之壽 一라호다 호南
山詩예 如南山之壽 一라호다 호南

運이 나날 일
의 옛도 다

江河

陂池溪潭附
律詩十五首

古詩九首

三川觀水漲二十韻

三川縣이屬
郿州하나라

我經華原來不復見平陸

華原은郡名이라
此는言為水이所

沒也이라○내
任平은무들보디
華原은디나오니

址上惟土

山連天走窮谷

北티그로올오니
히로소니하늘해니
오직흘외

火雲無時出飛電常在目

이는티
운구루

미끼고비당상오물니
미베니입시나고누는
번게상테누대잇도

다 自多窮岫雨行潦相逐蹙
逐 止呼回反 言水相擊也

라 〇기 昏되 해비 해오 모로 보
티 〇길 〇해 〇무리 〇쉬르 〇다 〇밀 〇희 〇도 〇다
翁 〇甸 〇川 〇氣 〇黃

群流會空曲
翁 〇甸 〇孔 〇反 〇이 〇오 〇甸 〇은 〇口 〇答 〇反

호네 〇헛 〇氣 〇運 〇이 〇누르 〇니 〇문 〇흐
르 〇는 〇무리 〇빈 〇구 〇비 〇로 〇못 〇낏 〇다
清 〇晨 〇望 〇高 〇浪 〇忽

謂陰崖踣
踣 〇은 〇蒲 〇止 〇反 〇하 〇니 〇蹶 〇也 〇| 〇라 〇言 〇高 〇浪 〇이 〇如 〇陰 〇崖 〇之 〇踣 〇也 〇| 〇라 〇〇 〇문 〇고

아 〇차 〇미 〇노 〇昏 〇문 〇겨 〇를 〇부 〇라 〇고 〇忽 〇然 〇히
어 〇드 〇운 〇빙 〇에 〇업 〇디 〇디 〇는 〇가 〇티 〇교 〇라
恐 〇泥 〇窟

蛟龍登危聚麋鹿
泥 〇滯 〇홀 〇가 〇지 〇히 〇蛟 〇龍 〇| 〇수 〇어 〇나 〇가 〇고 〇노 〇昏 〇디 〇물 〇아 〇사

밋도 〇다 〇모 〇枯 〇查 〇卷 〇拔 〇樹 〇礪 〇魄 〇共 〇充 〇塞
礪 〇上 〇洛 〇罪 〇反 〇하 〇고 〇魄

는口罪反하니沙石也
야枯槎沙石이同隘塞也
라○이운들구

큰싸허인남기기두말엇
니들과다못充塞하얏도다
聲吹鬼神下勢

閱人代速
水聲 | 吹動하니如鬼神之來下
오水勢 | 惡流하니如人世之

迅速也 | 라○물소니불이니鬼神이느려
오노도고양느른보니사르미代 | 색로도

도
不有萬穴歸何以尊
四瀆
濟니라言萬穴

之水 | 會歸四瀆故로四瀆 | 為之尊大也
라○萬穴人브리가미잇디아니하면엇

네
尊하리오
及觀泉源漲反懼江海覆리
이

니
가민江海
泉源의 밑여슈물보매이치도

르 허江海 一 업 漂沙拆去岸漱壑松柏禿

몰애 느 두 들 기 때 티 가 는 니 밋 고 乘陵破山

門回幹裂地軸 地有三千六百軸 應陵破山

고 두 르 힐 휘 地軸 交洛赴洪河及關 豈信宿

關은 潼關也 一 라 再宿 日信 一 라 洛水에

자 리 오 밤 應沉數州 浚如聽萬室 哭

의 우 는 소 리 를 듯 는 듯 후 도 다 穢濁殊未清

風濤怒猶蓄 言汚濁之物 一 未盡滌蕩故로

터럽고 흐린 거시 기 잠물디 못흐니 부러
매 울겨 리怒호미 오 히려 답사 헛도 다
何

時通舟車陰氣不黤黠어느 지귀비와 술 위
도요 미通호야陰氣

어듬리 아浮生有蕩汨吾道正羈束言當世之
亂호야

吾道一拘束而不得伸也라○는 人 生에
두루도 노미 잇고 내의道는 正히 罔미 은 反

도 人寰難容身石壁滑側足言天地雖大
而若無所容

이오山石一滑而不得安行호니 感傷之言
也 一 拉○사 름사 노 泮 何도 已 문 容 納 호미

어렵고石壁도 밋그리雲雷屯不已艱險路
위바를기우려뵈노라

更躅躅은 渠玉反 호니 曲也 一 拉○ 구름과
을에외屯聚 호요 문마디 아나 호니 나

어려운 길 헤다 普天無川梁 欲濟願水縮

하를 해내 해 두 리 업스 너 건 너 고 지 因悲中

林士未脫葬魚腹 此言有沉溺之患也

나디 못 호 물 지 즈 로 슬 로 라 舉頭向青天

安得騎鴻鵠 야 보 노 나 엇 데 시 러 곱 鴻鵠 을

타가
려노

奉同郭給事 湯東靈湫作

東山氣鴻濛 宮殿居上頭 東山은 驪山也 鴻濛은 廣大貌

니 라 ○ 東山에氣運이 퍼 잇는 君來必十月

樹羽臨九州 玄宗 | 每年十月에 幸溫湯寺
다 시 니 라 樹羽는 호 羽葆蓋也

니 라 ○ 남 금미 오작물 반 드 기十月에 응시
나 세 옛는 羽葆이 아 흠 디 을 훈 디 께 도 다

陰火煮玉泉噴薄漲巖幽 陰火는 溫泉이 더
우미 잣 소 께 브 리

클 히 는 듯 글 시 라 ○ 陰火 | 玉 又 泉 을
클 히 는 니 참 더 바 화 幽深 흐 디 밑 옛 도 다 有

時浴赤日光抱空中樓 有 時에 불 근 나 리 沐
浴 呂 는 니 비 치 空中

人搜의 산 閨風入轍迹曠原延冥搜 閨風曠
原 曠

遊崑崙 崑崙 而 冥搜也 | 言玄宗遊 幸 驪山 | 若

예 드니 曠原이 먼 뒤 拂天萬乘動觀水百

丈湫 이湫는池也 湫이 뛰여 무를有文인 모세와 보시 늦다

幽靈斯可恠王命官屬休 幽深靈異 可히 奇恠 昏시 남

그미官屬은命 初聞龍用壯擘石摧林丘中

夜窰宅改移因風雨秋 미健社 夜 돌흔 岬 吐

여林丘를 묻히리 티고 박미 사는 什 昏고 倒

懸瑤池影屈注滄江流 上句는 兮고로 바 취여

살사라 〇瑤池에 그르에 艾고 노 들 엇고 滄

味如甘露漿漿揮揮美滑且柔叶甘露漿又

叫叫翠旗澹澹偃蹇雲車紛紛少留偃蹇

負負一一旗旗○○旌旗旌旗一一偃蹇偃蹇○○十十簫簫

鼓蕩四溟異香泱泱泱泱○○烏朗烏朗反反○○廣太廣太

負負一一旗旗○○旌旗旌旗一一偃蹇偃蹇○○十十簫簫

微綃曾祝祝沉豪豪也也一一見前註見前註○○曾曾

曾曾祝祝一一沉牛沉牛以祭也以祭也○○鮫人鮫人一一獻綃獻綃○○高高

是是曾曾祝祝一一沉牛沉牛以祭也以祭也○○鮫人鮫人一一獻綃獻綃○○高高

百祥奔盛明古先

莫能壽

온가짓祥瑞 一盛明 一신재 오느니

坡陀金蝦蟆出見盖有由

坡陀는不平負 一喻安

至尊顧之笑

王母不遣收復歸虛無底化作長黃蚪

一玄宗 一幸

溫湯이이시늘楊國忠 一奏祿山 一必叛 一

知國忠之謀 一而至 一亦寵愛之 一還歸而反

故云出見之有由 一라호며化作黃蚪 一

스려여곰잡들아니호니도로민업 一飄飄靑

瓊郎文彩珊瑚鉤漢制 | 給事中 | 暮入青

宮 | 飄飄 | 青瓊門 | 浮宮 | 浩歌綠水曲

清絕聽者愁綠水 | 其詩 | 清雅絕倫

聽者 | 愁不能及也 | 綠水曲 | 聽者

漢陂行

岑參兄弟皆好竒
携我遠來遊漢陂

西宮 | 兄弟 | 漢陂

地蹠慘忽異色
波濤萬頃堆琉璃

同 | 與

色也 琉璃 水色 青瑩 一 珠 ○ 하는

과사 패어 드 위 忽然 히 비 치 다 르 니 물 리

萬頃 나 흐 리 琉璃 琉璃 汗漫 泛舟 入事 殊

興極 憂思 集 琉璃 一 이 원 디 비 를 비 위 드 로

시름 도 원 비 罷 作 鯨 吞 不 復 知 惡 風 白 浪 何

다 시름 도 다 罷 作 鯨 吞 不 復 知 惡 風 白 浪 何

嗟 及 니 이 는 시름 나 는 이 를 니 러 니 라 ○ 罷 一

면 소 니 모 린 罷 作 鯨 吞 不 復 知 惡 風 白 浪 何

為 開 舟 子 喜 甚 無 氛 埃 ○ 主人 是 指 岑 參 ○ 나

빛 듯 큰 서 르 為 亨 야 피 니 비 달 흥 錦 ○ 로 혼

사 르 미 기 錦 ○ 로 혼 鳥 驚 散 亂

棹謳發絲管啁啾空翠來

은히 들리히 해어 빛
고 빛히 들리는데

고絲管수고고빈프
沉竿續蔓深莫測菱

葉荷花淨如拭

言用竿蔓
아測水之深也

니어도기피를測量디
은남과蓮人과과조호미스손
도나말
宛

在中流渤海清下歸無極終南黑

言溪陵
如渤海也

라○最가온대渤海
의슈나아래로구지엄시
가나終南山이거

어도半波以南純浸山動影
龜窠冲融開窠

冲融은皆言水深
다○波로半안
南이
근다외흔
잠맛나
이
년
부르
에
龜窠
冲融

호다 이 船 舫 暝 憂 雲 際 寺 水 面 月 出 藍 田 關

비 시 우 를 나 조 히 雲 際 山 人 덜 로 고 라 此 時
가 나 水 面 에 다 라 藍 田 關 에 什 此 다

驪 龍 亦 吐 珠 馮 夷 擊 鼓 群 龍 趨 馮 夷 此 及 下

兩 聯 皆 言 溪 坡 人 景 物 也 馮 夷 此 及 下
은 龍 在 古 스 를 비 완 나 나 馮 夷 此 及 下

正 湘 妃 漢 女 出 歌 舞 金 支 翠 旗 光 有

無 金 支 樂 器 上 飾 也 湘 妃 漢 女 出 也
늘 金 支 에 보 르 고 飾 이 라 湘 妃 漢 女 出 也

尺 尺 但 愁 雷 雨 至 蒼 茫 不 曉

神 靈 意 龍 怒 而 雷 雨 至 也 尺 尺 此 恐
神 靈 意 龍 怒 而 雷 雨 至 也 尺 尺 此 恐

예 오 직雷雨 | 올가시름호노니 아으
라 호야神靈의쁘들아디못호리로다 少壯

幾時奈老何向來哀樂何其多
地 | 업오니天

비치 다르니向來옛所哀 | 오이우고나리
물가고장노니向來옛所樂也 | 라○저은

저근 언마맛베니오늘구메엇데호려호
向來에슬프며즐거우니조모하도다

溪陂西南臺

高臺面蒼陂六月風日冷
水 | 平臺 | 平陂

六月에부르매나薰葭離披去天水相與永
리서늘호도다

과물리바러시다가나하늘
과물래서르다못기도다 懷新目似擊接要

心已領조인사함은소랑호니누네데본드스고

마연제 仿像識鮫人空蒙辨漁艇仿像은不

空蒙은若無而空호며若有而蒙호니言難

辨也 一라 스므시 鮫人은알오空蒙하교

기잡는비를 錯磨終南翠顛倒白閣影終南

은답山名 一니在長安호니라 終南山人

프른비치섯 큰이교 白閣山人 그르메갓고

로드렛 嶺峯增光輝 素陵惜俄頃增光輝는

도다 峯增光輝 素陵惜俄頃 增光輝는

브레드니버치편편히더을사라 〇노픈뵈

비치더으니나陵犯호야든고물려근뵈도

앗겨호 勞生愧嚴鄭外物慕張邴 人生又비

노라 勞生愧嚴鄭外物慕張邴 人生又비

子陵과鄭子眞을 벗그리고萬物을 벗
사모물張良과邵曼容을思慕하노라世復

輕驩吾甘雜蠢
言世人輕棄賢才故
雜於小人也

○世人一在道只
내머구리석리여
잇겨슈물들
히너기노라

知歸俗可忽取適事莫並
言知歸山林
俗之累可忽

의오取適於心則凡事
라○갈디론아로니世俗
을어루므던히너

기리로다只○
호문이리곤오리
업스리라身退豈待官老

來吾便靜
들위야호리가
오늘거오매
심히寂

靜호물便安
히너기노라况資養
是庶結茅茨
迥地

多有羨艾可食之物하니當結茅屋而居也
| 니라○하물며말화물하貨賴하미하니
의새지불아○하從此具扁舟彌年逐清景
라히지오리라○하從此具扁舟彌年逐清景
브러져근비물○초하야히
못도로구물근景을조차리라

南池 在閬州하니라

崢嶸巴閬間所向盡山谷

외노문巴州閬州
人人이예向하야

가논덕다뭇安知有蒼地萬頃浸坤軸프른
고리로다

타빅萬頃이坤軸을
아잇는등어는아리오하呀然閬城南枕帶巴

江腹呀는虛加反하니張口良이라○
人南덕귀입병으렛는듯고巴江人비

를 배며 서 **菱荷入異縣** 杭稻供此屋 言池水

既之利故 運과 歲稔而供此屋之食이니라

이 **皇天不無意** 美利戒止是 **高田**

失西成此物 頗豐熟 言天意不使狼藉有餘利

稻則 賴此水而必稔也 歲或不熟이라도此杭

라 警戒 言是 **清源多衆魚** 遠岸富膏木

출해 물고기 하고 **獨嘆楓香林** 春時好

들 **獨嘆楓香林** 春時好

顏色

楓香人수프리북時節에비치

南有漢

王祠終朝走巫祝也

言巫祝一奔走祭漢高祖

祠廟一잇니아太미

歌舞散靈衣荒哉

舊風俗

靈衣는神衣也라○놀애브르고

高堂亦明王魂魄猶正直不應空陂上

縹緲親酒食

노끈지비의佐분근님그미겨시

들우희아○라히酒食을親近

淫祀自古昔

非唯一川瀆

言淫祀一이싸썩아나라테브

土寺

六

旱川旱川續續但但아아니니라라干干戈戈浩浩茫茫茫茫地地僻僻傷傷極極目目

干干戈戈一一해해아아○○라라하하니니幽幽僻僻○○平生平生江海興江海興

遭遭亂亂身身局局促促○○江海江海에에갈갈興興心心○○로로亂亂을을맛맛

구구궤궤노노라라駐駐馬馬問問漁漁舟舟躑躑躑躑慰慰羈羈京京

기기잡잡는는비비를를두두러러어어므므러러시시

慰慰勞勞○○노노가가

萬丈潭 在同谷縣

清溪合冥冥神物有顯晦神物○謂龍也

어어득득호호미미모모닷닷니니神神奇奇○○龍龍依依積積水水蟠蟠

窰壓萬丈內

龍一답사흔 무를보타서렸는
나구기萬丈人안해臨壓하얏

도 躅步陵垠堦側身下煙靄垠堦은潭邊也

가러이로오고모물기前臨洪濤寬却
우러烟靄人서리르노료라

立蒼石大 알프로臨호니큰물겨리어위오
물러서보니프른돌히카도다

山危一徑盡崖絕兩壁對히모히노핀뒤흔길
그흔뒤두벽石壁

削成根虛無倒影垂澹瀨
對하얏도다

瀨는徒對反하니澹瀨는猶澹施나水
帶沙往來負이라

黑知灣環底清
흔므래불휘하얏고갓고그
르메는물하드렛도다

七詩
一

見光燭碎기란비치비오 초물보노라孤

雲倒來深飛鳥不在外외외고온구루미기핀

藤蘿一帳帳과집과드외엿고서늘은
高蘿成帷幄寒木疊旌旆

流嵌竇潛洩瀨연내히급구뤄어흔로이遍

造幽無人境發興自我輩幽深흔사

告歸遺恨多將老斯遊

最

최

최

閑藏蟄脩鱗出入巨石礙다터갈아근비스
리수엿스니나며

드리로애큰홀히何當炎天過快意風雨會이

이제치위蟄藏하얏스니
어느저과터운하

늘은갈갓나부름비모도애快히스라날고니
를사라○어느저과터운하늘히디나모
기든바름과리얏모도애쁘들현히홀고

泛溪

落景下高堂進舟泛回溪이디는히예노핀堂
이쉬느려비를나

오와회돈시誰謂築居小未盡喬木西남기築
居를

적다나르리오노핀나못西人遠郊信荒僻

秋色有餘凄하니고眞實은기출은幽僻

練練峯上雪다纖纖雲表霓라練練은白負

童戲左右岸하닌모듬부리우희누나오다

弋畢提携아히든히左右人두들게셔노

翻倒荷芰亂指揮此는恐小兒의迷

之也라蓮과말와물두위터어조得魚

已割鱗採藕不洗泥고기른어더하야비느

人情逐鮮美物賤事已睽言得魚而不食

竊也 一 然 ○ 사근 의쁘다 鮮美 호근 거슬 좃스
니 物 一 卑賤 호근 니 이 리 호근 마 어 그 름 도 다

吾村靄冥姿異舍鷄亦棲 양우 리 호근 은 히 나 짓
靄 盛 호근 고 다

근 지 비 도 들 기 佐 蕭條 欲 何 適 出 處 庶 可 齊
기 세 오 근 닷 다

이 는 出 此 外 隱 處 근 호근 가 지 로 너 거 富 貴 호
근 로 네 가 난 호 樂 은 이 괴 에 마 를 디 락 니 른

시 라 ○ 蕭條 히 어 드 러 가 고 저 호근 미 오 衣 上
出 處 門 外 의 可 히 고 저 기 호근 디 로 다

見 新 月 霜 中 登 故 畦 出 處 門 外 의 可 히 고 저 기 호근 디 로 다

로 을 아 濁醪 初 自 熟 東 城 多 鼓 鼙 時 有 東
가 라 濁醪 初 自 熟 東 城 多 鼓 鼙 時 有 東

之 亂 호근 니 라 ○ 호 린 수 리 처 임 니 구 호
로 브 더 東 城 에 사 호 맏 북 소 리 하 도 다

張溪

當時浣花橋溪水纔尺餘當時人浣花人下

白石明可把水中皆有行車皆言

秋夏水淺之狀○○忽後溢豈唯入吾廬此言水漲言

蛟龍亦狼狽是鼈與魚

則無擾倉皇失據者謂之狼狽

○蛟龍

茲晨已半落歸路

跬步踈 半步曰跬 一跬步踈는 步踈의 半

만 만 半 리 리 半 예 예 半 요 요 半 도 도 半 라 라 半 갈 갈 半 길 길 半 마 마 半嘶 嘶 半 未 未 半 敢 敢 半 動 動 半 前 前 半 有 有 半

深填淤 深 半 니 니 半 알 알 半 피 피 半 기 기 半 폰 폰 半 존 존 半 흘 흘 半 기 기 半 며 며 半 옛 옛 半 도 도 半 다 다 半 靑

靑屋東 靑 半 麻散亂 麻 半 床上書 床 半 집 東 녀 깃 사 문 프 르

흐 흐 半 러 러 半 어 어 半 즈 즈 半 不意遠山 不 半 雨夜來復何如 雨 半 면 뜻 했

바 바 半 기 기 半 디 디 半 아 아 半 니 니 半 허 허 半 다 다 半 나 나 半 我遊都市間 我 半 晚憇必村墟 晚 半 必 村 墟

乃知久行客 乃 半 終日思其居 終 半 村墟는 指草堂也

村墟 村墟 半 에 에 半 가 가 半 노 노 半 나 나 半 오 오 半 래 래 半 든 든 半 나 나 半 그 그 半 내 내 半 나 나 半 리 리 半 못 못 半

그릇 제사하는 데서
탕호물알와라

太平寺泉眼

招提憑高岡踈散連草莽
招提는佛寺也

出泉枯柳根汲引歲月
출수고류근급인수월

古
이은비드름휘에서시미나
石間見海

眼天畔縈水府
海水地中으로석소사

泉脉 하나하하수府에비무리석인어기소
사나나니라오드소이에바물누는보나하

水府에
廣深丈尺間宴息敢輕侮
와니

피외 丈尺 만 혼 소 이 에 편 안 히 靑白二小蛇

쉬여 석구 티 여 업 시 위 리 아 幽姿可時靚 흐프 르니 와 힌 두 쳐 근 비 야 미 幽

다 如絲氣或上爛熳為雲雨 詩 昏 氣 運 1

터 구 롱 과 비 파 山頭到山下鑿井不盡土 不

土 는 기 피 푸 디 아 니 호 야 도 으 리 곳 날 시 라

○ 뭇 그 드 로 석 뭇 아 래 니 르 리 우 문 꼭 문 흘

골 다 호 디 아 取供十方僧香羨勝牛乳 1

니 호 니 니 라 아 取供十方僧香羨勝牛乳 1

十 方 外 證 을 이 반 누 니 香 羨 土 風 起 寒 文 弱

藻舒翠縷 北 卜 비 르 애 치 온 水 文 1 1

上 詩 一 三

도다 明涵客衣淨 細蕩林影趣 오슬기나그세

何當宅下流 餘潤通藥 에코로이어가듯다

圃三春濕黃精 一食生毛羽 黃精은草名

저기나라생毛羽는謂為飛仙也 라어는

藥圃에스미차三春에黃精이젓기든 은번머거리리와짓과를나게하러는

長江二首

象水會涪萬瞿塘爭一門 瞿塘은三峽之門

涪州萬州로못나니瞿塘에 호門으로나와흐르듯다 朝宗人共挹盜

賊爾誰尊이느물도바를로朝宗호니니盜

바를로朝宗호문차르이다挹取호니孤石隱

如馬高羅瀨瀨石高二十丈許飲猿

馬호니니라니비藤羅를자바드리셔飲水

호니니라오외로원돌호그음호야물고歸心異波浪何事即飛

고노근藤蘿엔물먹歸心異波浪何事即飛

浩浩終不息乃知東極臨浩浩는水流貞歸

東海니니浩浩호야호야말고돌아노라象

流歸海意萬國奉君心

萬國으로가는뜻이여

의님은금을奉戴하는

色借瀟湘闊聲驅灩澦深

비치는瀟湘人디부름발오소리

未辭添霧雨

接上遇衣襟

霧雨의티우물마디아나하니

瞿塘兩崖

三峽傳何處雙崖壯此門

兩崖對峙

之如門하니라이傳하야나리니오두비릿이

峽을어디를傳하야나리니오두비릿이

門이健壯

八天猶石色穿水忽雲根

石也

라 ○하늘해드러도 오히려득비치오므
를 들워드리도문드사구름본휘로도
獬鬣鬣古蛟龍窟宅尊외오분입기우치테리
다 좁도義和冬馭近愁畏日車義和의겨우翻駕馭호미이
돌해갓가오나히튼솔위두
위틸가져허시름하노라

瞿塘懷古

西南萬壑注勅敵兩崖開西南으로萬壑어스
편역흔두비地與山根裂江從月窟來은月窟
方月沒處이라○하하되불휘와다
씩여릿고고르문月窟로브터오늦다削成

當白帝空曲隱陽臺 削成 言兩崖 如削

斗 白帝城 當 高 崑崙 鑿 功 雖 美

陶鈞力大哉 言禹之治水之功 雖美而天

造化之功 比 功 大 也 一 功 大 也 一 功 大 也

灑灑堆

巨石水中央 江寒出水長 石 水 中 央 江 寒 出 水 長

沉牛答雲雨 如馬戒舟航 沉 牛 答 雲 雨 如 馬 戒 舟 航

報答 報 答 之 意 必 沉 牛 之 意

면 비를 하야 비 리는 나라 ○ 소극 드 마雲雨
를 報答하느니 문근 거 든 비 든 노 문 警戒하

라니 天意存 傾覆神功接 混茫 下는 비 든 업
터 비 료 문 뒤

아니 鬼神의 명교론 功은 干戈連 解纜行止

憶垂堂 垂堂은 謂坐堂外邊 一니 千金之子
는 猶畏墮而坐不垂堂 一어늘 甫는

有乘舟之危 言는 사랑하리라 ○ 干戈入 什
리에 비어 빛 주를 글 어 든 나 노 나 녀며 말며

호매 堂入 교애 안 조 문 사랑하노라

豔頰

豔頰 既浚 孤根深 西來水多愁 太陰 豔頰 一
하마 呑

거외로온 불휘기 프니 西人녀 그로셔 오
는MRI하니 카어 드오물시름하노라 江

天漠漠鳥雙去風雨時時龍一吟
히아 두구하

는시때 들곰나라가고 비름비에
舟人漁子歌

回首估客商胡淚滿襟
아는MRI어려운 줄

름과고기잡는사르문 놀래블러셔머리
로로혀보고 흥정호나그내와 흥정
흔되

는MRI웃기제
寄語舟航惡年少休翻鹽井

橫黃金
言翻賣井鹽而橫得黃金
必有覆

름티브리마를브리노나
鹽井은
두위이지黃金을橫得하디말라

渡江

春江不可渡二月已

風濤나름 못不可하리也

니 二月에 舟楫

欹斜疾魚龍偃卧高

龍은 히즈러 누어 슈이 늑도다

渚花張素錦

汀草亂青袍

프른 퍼린 오사어 錦나 淸고 錦도 錦이

戲問垂綸客悠悠見汝曹

다 汝曹드리 汝曹노 汝曹르

문노라悠悠히이노 문너희 무를보노리

巴西驛亭觀江漲呈竇十五使君

宿雨南江漲波濤亂遠峰言波濤如山也

南南北北 크크 미미 밀밀 이이 니니 문문 거거 립립 도도 다
孤亭凌噴薄萬井

逼春容凌上也 擊鐘狀噴薄也 水漲也

勢若擊鐘聲也 一萬市井엔 무리리 春容호

야通 다 霄漢愁高鳥泥沙困老龍言因雨水

不得食호 고 龍困於泥中也 龍호 勞困호

도 天邊同客舍携我豁心胃하 豁호 心호 胃호

이 물 흐린 개호는 다

、又一首

轉驚波作怒即恐岸隨流고장물거리怒를

고곧 두들기조차賴有杯中物還同海上鷗

흥러갈가전노라흥허잔사온다수리잇나니도로허關心小

剡縣傍眼見揚州言剡縣揚州○只○애가

리剡縣 | 正고아흔가사且 為接情人飲

朝來減片愁情人은指使君 | 有情人為

맛시르미더느다

又呈竇使君

向晚波微綠連空岸脚青
가 나 虛空 에 나 은 日兼春有暮愁與醉無

두 들 기 프 르 도 다 日兼春有暮愁與醉無

醒詞
은 슬 프 흥 과 다 日兼春有暮愁與醉無

漂泊猶杯酒踟躕此驛亭
이 驛 人 亭 子 相者萬里別同是一浮萍

相者萬里別同是一浮萍
에 머 프 르 라 相者萬里別同是一浮萍

相者萬里別同是一浮萍
가 지 로 이 흐 닷 浮萍 相者萬里別同是一浮萍

江漲

江發蠶夷漲山添雨雪流蜀地之源○皆出

이蠶夷에셔나밀엇나니외해는
雨雪노가흐로미티우듯다
太聲吹地

轉高浪蹴天浮근소리는하해불녀음고노
은을계른하늘흔밖차엿도

斗魚鼈為人得蛟龍不自謀言水張溢故로
龍이皆失

勢也라○고기와차래는사르의어들거
시고외얏고蛟龍은제모물혀하디못하는

斗輕帆好去便吾道付滄洲가빅야온빛듯
斗하니나道를
무레브류리라

斗하니나道를
무레브류리라

江漲

江漲柴門外兒童報急流시브로흐門밖의

아히들히셀리흐아하들히셀리흐下床高數尺倚杖浚中洲

平床여쉬슈니가온뒤평床여쉬슈니가온뒤을고의좁는다을고의좁는다細

動迎風燕輕搖逐浪鷗微細히비롬맛는저

이물결곳곳으며이물결곳곳으며漁人縈小楫容易拔船頭

拔船頭는開船而行也라○고기자블사

리이쇼고맛비취비무리쉬슈이빛어리리이쇼고맛비취비무리쉬슈이빛어리

臨邑舍第書乃至悵苦雨에黃河

泛溢야隄防之患은簿領所憂홀因

寄此詩야用寬其意라

二儀積風雨百谷漏波濤二儀는天地也

비사하시니온뫼고리聞道洪河拆遙連滄

海高아니라히바르래니어노팻도다職司

憂悄悄郡國訴嗷嗷職司는當職司水之官

○職司는시름야悄悄고郡舍第卑棲

邑防川領簿曹가오나내홀마고이簿曹의

水言一三
三

개領도다 **尺書前日至** 版築不時操 版築은以

土築之니言隄防之後 라 ○자맛글위리
어젯날오니 版築호물배니 아닌 지긋자백

도 **難** 假鼃鼃力空瞻烏鵲毛 穆王 鼃鼃 至九江

하 여牛女渡河에烏鵲 一成橋 하 此는言
難用是物 하 야為隄防也 라 ○鼃鼃의히

티 비로미어러우며烏鵲의 燕南吹 **畎** 濟

上 **浚** 逢高 燕南濟上 一 은 皆地名 一 4 다 黃河

므리 불엇고 濟上엔 다 **螺蚌** 滿近郭 **蛟** 螭 乘

九 **臯** 다 므리 浚 溢 호 이 를 나 르 나 라 ○ 擘 龍

이갓가 온城郭에 7 두 하 엿고 蛟龍

아 흠비고 두들

글 탕도다

徐關深水府碣石小秋毫

徐關

地也 | 言碣石山 | 後於水

如秋毫也 | 徐關

외얏고 碣石은 ㅈ고 아

하야 ㅈ은 ㅈ리 ㅈ도다

萬艘 茅屋은 ㅈ이 ㅈ기 ㅈ나 ㅈ모 ㅈ잇고 ㅈ비 ㅈ는 ㅈ靑

원남기 잇고 프른 하늘

한 一萬 비를 일도다

蟠槎 梗은 들구리 라 蟠槎 ㅈ는 ㅈ在 ㅈ東 ㅈ海 ㅈ中 ㅈ山 ㅈ하

欲乘水漲 ㅈ야 ㅈ至 ㅈ蟠 ㅈ槎 ㅈ之 ㅈ仙 ㅈ境 ㅈ也 | ㅈ라 ㅈ은 ㅈ나

衰老 ㅈ야 ㅈ며 ㅈ도 ㅈ나 ㅈ는 ㅈ들 ㅈ글 ㅈ과 ㅈ고 ㅈ도 ㅈ나 ㅈ도 ㅈ하 ㅈ건

나 ㅈ가 ㅈ글 ㅈ蟠 ㅈ桃 ㅈ잇 ㅈ는

뒤를 ㅈ치 ㅈ노 ㅈ라

倚賴天涯釣猶能掣巨鰲

吾衰同泛梗利涉想

白屋留孤樹靑天失

土詩

三

龍伯人牛
 乃用寬其意也
 龍伯人牛乃用寬其意也
 龍伯人牛乃用寬其意也
 龍伯人牛乃用寬其意也
 龍伯人牛乃用寬其意也
 龍伯人牛乃用寬其意也
 龍伯人牛乃用寬其意也
 龍伯人牛乃用寬其意也
 龍伯人牛乃用寬其意也
 龍伯人牛乃用寬其意也

天池

天池馬不到嵐壁鳥繞通
 天池言高在山
 天池言高在山
 天池言高在山
 天池言高在山
 天池言高在山
 天池言高在山
 天池言高在山
 天池言高在山
 天池言高在山
 天池言高在山

壁에 ㅁ 리 가 디 못 ㅎ 나 구 룬 인 石
 百頃靑雲
 百頃靑雲
 百頃靑雲
 百頃靑雲
 百頃靑雲
 百頃靑雲
 百頃靑雲
 百頃靑雲
 百頃靑雲
 百頃靑雲

抄曾波白石中
 抄曾波白石中
 抄曾波白石中
 抄曾波白石中
 抄曾波白石中
 抄曾波白石中
 抄曾波白石中
 抄曾波白石中
 抄曾波白石中
 抄曾波白石中
 抄曾波白石中

鬱紆騰秀氣蕭瑟浸寒空
 鬱紆騰秀氣蕭瑟浸寒空
 鬱紆騰秀氣蕭瑟浸寒空
 鬱紆騰秀氣蕭瑟浸寒空
 鬱紆騰秀氣蕭瑟浸寒空
 鬱紆騰秀氣蕭瑟浸寒空
 鬱紆騰秀氣蕭瑟浸寒空
 鬱紆騰秀氣蕭瑟浸寒空
 鬱紆騰秀氣蕭瑟浸寒空
 鬱紆騰秀氣蕭瑟浸寒空
 鬱紆騰秀氣蕭瑟浸寒空

鬱紆騰秀氣蕭瑟浸寒空
 氣盛也

시라 ○ 鬱紆히도 흥氣運 | 레드리비취여실

존虛空을 直對巫山出無疑夏禹功 言疑其

所鑿也 | 라 ○ 바르巫山을對하야 낫 魚龍

開闢有斐矣古今同 잇기 와龍과開闢부터

지로다 聞道奔雷黑初看浴日紅 늘드르기로

는 헛비치블고문처엄보독다 飄零神女雨

斷續楚王風 宋玉의風賦에此는大王之雄

어 些든고楚王이부르문 欲問支機石如臨

木言 一三

獻寶宮

張騫 一 天河 娥 織女 之 魄 是 魄 是 魄 是

宮 伯 宮 也 寶 器 也 一 此 是 天 地 也 比 天 河 與

의 臨 珍 寶 也 一 九 秋 驚 鴈 序 萬 里 狎

漁 翁 九 秋 也 一 萬 里 也 九 秋 驚 鴈 序 萬 里 狎

狎 更 是 無 人 處 誅 勞 任 薄 躬 之 處 幽 僻

可 以 卜 居 一 誅 鉏 茅 菜 之 勞 一 處 幽 僻

히 由 所 卜 居 一 誅 鉏 茅 菜 之 勞 一 處 幽 僻

登白馬潭

水生春纔沒日出野船開

따르니 봄 빛 주리

리 햇비 물여

宿鳥行猶去花叢笑不來

來는

○ 새디 나가니 몹고 지물러 가는 듯 혼시라

호 오디 아나 人人傷白首處處接金杯

다 센머리 물슬스니 곧가 莫道新知要南征且

未回 甫 荆衡으로 가도 띠오디 아나 흥릴

나 가 새려아논사름이 조으리다 흥야

라 호 리

土寺三

都邑 古詩二首 律詩三十五首

閬山歌

閬州城東靈山白 閬州城北玉臺碧

北靈山 一 하여고 閬州人城 松浮欲盡不

盡雲江動將崩未崩石

아소남권 업슬 뜻어업디 那知根無鬼神

會已覺氣與嵩華敵

도아미업수 문알리오氣 中原格鬪且未歸應

運 嵩山華山과다

結茅茨看青壁

兩相敵日格闕一
타○中原

노니 당 당 이 세 지 불 지 이 석 프
은石 壁 을 보 고 이 슈 리 라

閿水歌

嘉陵江色何所似石黛碧玉相因依

嘉陵人

촌므스 거시 그 트 나 오石黛와
碧玉 패서르르브 텃는 듯 하도다 正憐日破浪

花出更復春從沙際歸

浪花는 몹 거 리 곱
흔시 라 물 앓 그 이 프

리도 드 나 보 이 도 라 오 물 알 리 타○
를 해 터 도 다 나 물 호히 憐愛 하 노니 佐 보 미

물 앓 그 을 조 차 巴童蕩槳歌側過水鷄含魚

來去飛

巴州人 아히는 비출이 어기우시디
나가고 문들고고기물므러오락가

六六 閩中勝事可腸斷閩州城南天下禘

閩州

城南州山極秀麗宮시謂之錦屏山이라
六六 為天下第一 나라 閩中 옛호이

리어 푸어 굿브니 閩州人城
南티 근 天下에 드므도다

建都十二韻 寶應元年以京兆府為
上都河南府為東都鳳翔

府為西都江陵府為南都
大原府為北都 호니라

蒼生未蘇息胡馬半乾坤 百姓니 시디 못호
乾坤百姓니 되미리 乾

坤애 半만 호도다 議在雲臺上誰扶黃屋尊 黃屋은
天子人

車蓋車蓋言雲臺言雲臺諸公諸公議國事議國事非急務也非急務也

라○議論호미雲臺雲臺人人扶扶持持高高建都分魏闕建都分魏闕

下詔關荆門荆門魏闕魏闕指江陵指江陵○都邑은

와荆門에恐失東人望其如西極存此是言

陵則開東西蜀阻隔也○東東安存

호맨엇時危當雪耻計大豈輕論此是南江

陵之議無益於時也○時節危亂은

미크나엇데가비雖倚三階正終愁萬國飛

이議論호라오

三階三天之三三台三階三正正天天下下

大平平此此言言이제예建都호미비로

天天下下便安便安也也고려호나然偏在一方

未未能鎮定萬國也也나라○비로_{三階}正

國國요을브터호나只_六만_帝裾恨不死漏

網辱殊恩魏人辛毗帝裾而諫호나라

라 永負漢庭哭遙憐湘水魂文帝時에賈誼

호고屈原諫懷王不聽而投湘水호나甫

未能如賈誼之諫而憐原之死也

湘水 옛날 우루물 가리 저나라 고 窮冬客江劍

隨事有田園 江劍은 指蜀을 가리키는 말이다. 외 요니 사

園을 뒤로 노라 風斷青蒲節霜埋翠竹根 土

은 喻衰老을 가리키는 말이다. 下句는 喻守節을 가리키는 말이다.

衣冠空穰穰關輔久昏昏 穰穰은 衆多也

關輔는 關中三輔를 가리키는 말이다. 言長安에 有寇亂也

願枉長安日光輝照北原 此는 言

原河北之地 未定하니 卒絶업시 江陵에 達都마르시고 모로매 鎮定河北을 디니라

○願_은은_은長安人_을히_을를_을구_다
펴_다비_를출_을址_를原_에에_를비_를취_고쇼_고件_다

江陵望幸

雄都元壯麗望幸歛威神雄都_는指_는江陵_을郡_也

신_은본_디로_는壯_麗은_은니_는은_은드_시威_神은_은地_利西

通蜀天文址照秦風烟含越鳥舟楫控吳人

地_利는_은西_人녀_고로_는蜀_에通_고며_는天_文은_은址

구_며시_며며_는吳_人사_未枉_周王_駕終_期漢

武_巡周_穆王_과漢_武帝_다巡_幸은_은니_는○_周人

守기를기期기望기하기다기甲兵分聖旨居守付宗臣

時기예기吐蕃기一陷京기一기留守기하기니기라기○甲兵에

고郭子儀로為京城留守하기니기라기○甲兵에
님곳에서는환하기니기居守호
早發雲臺仗恩

波起涸鱗言救南方窮困之民也一라○일
雲臺仗恩波하기어기원

와기다기내기쇼기쉬기

峽隘

聞說江陵府雲沙靜渺然江陵府에 구름과

아기○기라기하기니기라기白魚知切玉朱橘不論錢

言江陵之景言나라○한문고기논조은비
한듯고블근橘은비들議論아나라하나라

水有遠湖樹人今何處船人言江陵有湖
樹之景言나라我今在何處오嘆未即往之

辭이라○므랜먼고르옛남기잇나라사르
은이제어딛비青山各在眼却望峽中天此

옛왔가나오
言今在峽隘之中言야但見青山與天而未

能往江陵也나라○프른외히제여곰示
네잇나라도로히峽中

엇하날흔비라노라

秦州雜詩十七首

滿目悲生事因人作遠遊
上句上州生活
이러다슬플사

라 ○ 누네고든가보논사논이글슬노나
사르문은하야머리와노르문지오라
遲

回度隴怯浩蕩及關愁
○ 날호야隴을다
遲

十와저고원출히關에
水浴魚龍夜山空鳥
미처와셔시름하노라

鼠秋
魚龍川鳥鼠山
皆在秦州
鼠人고은

西征問烽火心折此淹留
西人녀고
로녀烽火

州圖領同谷驛道出流沙
同谷은縣名
地名川라

○ 圖誌는同谷을거는
流沙는
降虜無千

驛人길하流沙로가
는다

本詩 三十一

帳居人有萬家來降 高 下 是 帳 一 萬 家

다 itto 馬驕朱汗落胡舞白題斜朱汗 一 題 即 汗

額也 額也 | 라 ○ 리 골 외 나 블 큰 任 미 쓴 든 年
고 對 추 블 츠 나 힌 나 마 히 비 수 흥 또 다 年

少臨洮子西來亦自誇臨洮는 고 물 일 후 미

사 任 제 자 랑 ㅎ ㅎ 다
사 任 제 자 랑 ㅎ ㅎ 다

鼓角緣邊郡川原欲夜時鼓角 소 리 는 고 물

소 川 原 人 이 音 秋 聽 殷 地 發 風 散 入 雲 悲

고 角 聲 也 | 라 ○ 고 是 何 何 舍 于 禮
此 는 音 言 角 聲 也 | 라 ○ 고 是 何 何 舍 于 禮
나 는 音 言 角 聲 也 | 라 ○ 고 是 何 何 舍 于 禮

도리슬 프 抱葉寒蟬靜歸林獨鳥遲 此古真賦 角鼓景句

하니라 ○ 니 플 아 넷 는 호 리 야 미 피 외
하구수 플 로 가 는 외 로 윈 새 날 화 야 는 닷 다

萬方聲一槩吾道竟何之 戎馬之際 處處

吾何往也 오 嘆悶之辭 一 라 ○ 萬方에 소 리
흐가 지 로 소 니 내 도 는 지 六 매 어 드 리 가 려

노

城上胡笳奏山邊漢節歸 城우희되프저를

節 가 지 니 防河赴滄海奉詔發金微 金微는 隴右地

名 一 나 言 防河之士 一 自金微而發也 一 라
○ 河에 防 戍 亨 라 滄海로 가 는 나 詔 命 을 받

不와金微로
士苦形骸黑林疎鳥數稀
軍士

설로의나얼구리김고수프다리
那堪往來戍帳

解鄴城園
安慶緒를鄴城에園하였다가잡

戍계훈이큰훈흔시라
○가며오며
하야防

가혜여둔이
하얌직하리오
鄴城은비릿다

莽莽萬重山孤城山谷間
거촌萬重인되
해

로다
無風雲出塞不夜月臨關
無風은塞名

城名
一皆在秦州
하다
○無風엔구루미

고이셔나고
不夜안
하리
開에臨하얌도다

屬國歸何晚樓蘭斬未還蘇武 | 為典屬國

使樓蘭하야斬其王首而還하니 | 此言使

異域者 | 時未還也 | 屬國은도라오

미엇테느즈너오樓蘭王은烟塵一長望衰

比혀도라오티못하얏도다

颯正摧顏늘와드드레쉬훈번기리브라고

聞道尋源使從天此路回漢人張騫 | 乘槎

河하나라라오나르거늘드로니黃河人출훈

차던使者 | 하늘훈조차이길하로도라오

라나牽牛去幾許宛馬至今來張騫 | 自西域

善馬 | 라하야늘武帝 | 伐取之하나라오

牽牛는빙으로미언어만하리오大宛人

리이제나르
一望幽燕隔何時郡國開時安史

之亂에幽燕諸郡未平也나라
北來온딘幽州燕州즈음츠니어느저귀

郡國
東征健兒盡羗笛暮吹哀東征

호매
나조히부는소리스프도다
히나조히부는소리스프도다

今日明入眼臨池好驛亭오늘나래사리미

驛人亭子
로다叢筍低地碧高柳半天青

별기옛대는사해는죽하야프르고는
비드론하늘해반만티딜어프르도다
稠

疊多幽事喧呼闕使星漢人李邵傳에帝遣

使行州縣
어늘有

二使星一向益州分野후나後世에因以使臣은為使星一라후니라○여러블幽深후

이리하니들애여브로다老夫如有此不異

在郊垆늘근노비후다가이런뒤를두면

雲氣接崑崙泚泚塞雨繁泚泚은雨多負一

崑崙에니엇나泚泚羌童看渭水使客向

河源되아히는渭水를보나一使客은烟火

軍中幕牛羊嶺上村의와브른軍中一幕

로다은히所居秋草靜正閑小蓬門사는하히

寂靜하니正히高고
맛다북문을다도라

蕭蕭古塞冷漠漠秋雲低
蕭蕭히 넷기이서
는 하니 아 두히기

은 구루미 나黃鵠翅垂雨蒼鷹飢啄泥는
주 하도 다

은 늘개비에 드렛고 프른薊門誰自北漢將
매는 주려 늘 곧 딕 먹 늦다

獨征西上句는言燕薊에兵亂
下句는言伐吐蕃也
○薊門엔

위北으로보터서오不意書
하을로西人녀근征伐하늦다

生耳臨衰厭鼓鼙書生의귀에늘거쳐사호
맷북소리를아쳐라드를

고들너기다
아니호라기다

傳道東柯谷深藏數十家
東柯谷 | 在秦州

닐오디東柯谷애 두어
對門藤蓋瓦映竹

水穿沙
門을對호는藤蘿는디 새를두핏고대

다瘦地翻宜粟陽坡可種瓜
마르호는조가로미

도호니두손두들면어
船人相近報但恐失

花
借言漁人의迷桃源事호다○비문사

전노라호는다
선고즐일흔가

萬古仇池穴潛通小有天
仇池호고仇池에

士詩三

有地穴이通小有洞호니中出神魚이어든
食之者一得仙호는나라小有洞天은仙人

所居이라○舊古어仇池人古가
小有天에고마니通호였도다 神魚人不

見福地語真傳十道書에有三十六洞天과七
福地호나라○神竒로

원고기름사르미보디못호는나라福은
이러호는말스미眞實로傳호는다 近

接西南境長懷十九泉 池有九十九泉호
萬山環之호야可

以避世나라○西南人고애맛가이나라
엇는나라열아흥시물기리스랑호는나라 何時

一茅屋送老白雲邊 이느제호새지블지어
힌구름고이선늘구블

東國地輿記卷之三 三

未暇泛滄海悠悠兵馬間
○悠悠是景也
○滄海에 비역을

餘暇暇기입서兵馬人塞門風落木客舍雨

連山邊塞人門엔 비극애나 못니 피디느
阮

籍行多興龐公隱不還
南一以二人으로自
阮籍

斗뉴에興心하고龐公은
수머도라오디아니하나라
東柯遂衰懶休

鑷鬢斑斑
○鑷은 쪼기
○東柯에 가늘고게을 오물일위

석구인리리의어르누
구물썩디아니호리라

東柯好崖谷不與衆峯群
東柯에 비레와 및
群은 왜도하나라

士詩十三
四十一

무릿부리와와하아
아니니라
落日邀雙鳥
晴天卷片雲

디는히예두는라
오는새를마자드리는
野
니간하늘한후후
흐구루미거
덧도다

人吟絶險水竹會平分
言谷中之人
以竹

야
라
○미햇사
르미고
장險
흔디
쉬
吟咏
하
야
를
하
는
데
를
모
다
平
히
는
화
오
는
다

採藥吾將老
童兒未遣聞
약키야
먹고
내
將
찾
는
거
쉬
아
히
를

히여
곰들
이
디
아
니
호
리
라

邊秋陰
易夕不復辨
晨光
위
나
조
히
수
이
드

외
오
는
새
빛
도
고
를
蒼
雨
亂
林
幔
山
雲
低
度
히
디
문
호
리
로
다

牆외 집 웃기 슬겜비는 어즐러이帳은 뒤지고

鷺鷥窺淺井蚯蚓上深堂蚯蚓一名蛇蟪

夕江湖謂之歌女 陰而然也라 가마오디는 여든우므

를 엿보구 깃위논 기車馬何蕭索門前百草

長슬 위와 물 왜조모 外하 나門

地僻秋將盡山高客未歸客은南 僻하 뒤고은

나하 마다오나니 위하노픈 뒤件塞雲多斷

續邊日少光輝하 고고잇히는 비치적도다

土詩十三 二

警急烽常報傳聞檄屢飛檄은木簡이니徵

則挿以鷄羽 言니니謂之羽檄 라○警急

은 로 문 傳 傳 라 西 戎 外 甥 國 何 得 近 天 威 外 甥

婿 니 甫 宗 니 寧 國 公 主 로 下 嫁 回 統 하 시

에 시 리 공 하 는 威 嚴

鳳林戈未息魚海路常難鳳林魚海는皆地

之亂 하 니 라 ○ 鳳 林 에 사 호 미 갓 디 아 候 火

雲峯峻懸軍幕并乾幕并은우물우흘기리

와 실 시 라 ○ 候 望 하 는

北은 구름인 뭇 부라 노끈 뒤 잇고 軍을
히 드려 가애 집지은 우므리므리 도다 風連

西極動月過北庭寒北庭은北方也이라○

오드르北庭으로 다 故老思飛將何時議築

壇李廣은匈奴號曰飛將軍이라○다漢

라○태人늘근사리미는將軍은스랑

唐堯真自聖野老復何知言君自聖則忠

甫微言하야諷肅宗也이라○唐堯真

實로내聖人이라○로하사니의했늘그니

를알리오 曝藥能無婦應門亦有兒曝藥은

唐堯真自聖野老復何知

本草卷十三 四三

反 亨 日 乾 也 藥 用 是 也 能 治 諸 疾 也 門 外 有 石 曰 答 浩 曼 任 也 亨

也 藏 書 之 所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藏 書 之 所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也 藏 書 之 所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也 藏 書 之 所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也 藏 書 之 所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也 藏 書 之 所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也 藏 書 之 所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也 藏 書 之 所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也 藏 書 之 所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也 藏 書 之 所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也 藏 書 之 所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也 藏 書 之 所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讀 仇 池 記 而 欲 遊 其 處 也

龍門橫野斷驛樹出城來

出城來 驛으로 什 門의 내

龍門 南縣 龍門山 在河

寄寓秦州 如鷓鴣의 棲一枝之安也

寄寓秦州 如鷓鴣의 棲一枝之安也 讀仇池記而欲遊其處也

寄寓秦州 如鷓鴣의 棲一枝之安也 讀仇池記而欲遊其處也

寄寓秦州 如鷓鴣의 棲一枝之安也 讀仇池記而欲遊其處也

寄寓秦州 如鷓鴣의 棲一枝之安也 讀仇池記而欲遊其處也

寄寓秦州 如鷓鴣의 棲一枝之安也 讀仇池記而欲遊其處也

寄寓秦州 如鷓鴣의 棲一枝之安也 讀仇池記而欲遊其處也

심거실시라 ○龍門이 미해빛겨그 첫氣色
니驛엿섯는 남근城으로 나오듯다

皇居近金銀佛寺開 有佛居는 指東都하다 山
照

耀하나라 ○氣運과 비스름금사르시는
뒤갓가오니 金銀은佛寺 | 여럿도다 往

來時屢改川陸日悠哉 悠는長也 | 라○가
오매時節 | 조

改變하나라니내과무티 相関征途上生涯盡
은나라리기도다

幾回 이는터길우희든니는사르미엇버늘
來往하다가 주글고하논아리라○든

니는길우흔서르보노니사르
미사로문엇디위에只출고

夔州歌九絕句

中巴之東巴東山江水開闢流其間中巴人

東人외해고르엇브리開闢白帝高為三峽

鎮夔州險過百牢關百牢關은在梁州고니

峽엇늘러슈미드외앗고夔州人險호근百牢關에남도다

白帝夔州各異城蜀江楚峽混殊名白帝와

제여공城다르니蜀江과楚峽英雄割據

非天意霸王并吞在物情公孫述稱帝고니라

○英雄의다흐비히브터슈은하느고브디아니시니霸王의외화합제슈은사르이브테

잇나
나라

群雄競起向前朝王者無外見今朝

指上朝

○亂言나라無外言德化遠及也

王者의 밧 업수물오 此訝漁陽結怨恨元聽

舜曰舊箏韶此近也 待宴明皇樂名

聽音樂言야思寵至矣러나終乃肯思而反也 漁陽人사르미怨恨을미자슈

日옛닛箏韶人소리를듣더니본뒤로舜

赤甲白益俱刺天問閻繚繞接山巔
赤甲山 白益

山과 다 하 늘 흠 뵈 었 는 나 모 을
히 버 으 러 뵈 극 테 니 었 도 다
楓林橘樹丹

靑合複道重樓錦繡懸
신 나 모 수 플 과 橘 袖
모 땃

는 는 고 두 분 김 과 重 重 인 樓
는 錦 繡 글 두 땃 는 는 호 도 다

灤東灤西一萬家江北江南春冬花
灤 은 문
일 후 마

라 ○灤東灤西엔 一萬 지 비 호 江 北 과
江 南 엔 기 은 과 보 미 땃 는 고 지 로 다
背 飛

鶴子遺瓊蕊相趁鳧雛入蔣牙
牙 는 처 엄 돈
는 우 미 라 가

근 는 는 鶴 의 샅 기 는 구 슬
기 르 족 는 을 히 샅 기 는 蔣 蔣 人
하 리 로 드 러

다가 나

東屯稻畦一百頃北有澗水通青苗東屯地名

라○東屯人非심근이럼一百頃에北되크
잇는시넷므리프른임에소릿흐르느다

晴浴狎鷗分處處雨隨神女下朝朝海上翁

니업거논鷗鳥來親狎흔시狎鷗
니라○갠뒤셔沐浴하느狎鷗하느

화잇고비논神女를조
차아흔아다느리느다

蜀麻吳益自古通萬斛之舟行若風也若

○蜀人삼과吳人소금과네로브터相通
느니一萬섬잇는비오물비르물順하느다

長年三老長歌裡白晝攤錢高浪中夾人

上卷一三 四六

把蒿하야相水道者曰長年오正稍者曰

三老나長은上聲나攤錢은蜀人의 돈

하던나일후이라梁冀傳에射意오나射數

나라나長年과三老패긴늘옛스개석현

憶昔咸陽都市合山水之圖張賣時巫峽曾

經寶屏見楚宮猶帶碧峰疑南言嘗於畫

니今對碧峯하야疑是舊所見之畫也나라

○나은 혼딘네咸陽人都邑격제모다외과

屏風에보문디내요니楚宮을오히려프른

및부리글對하야北齊水經卷四

시疑心하노라

閩風玄圃與蓬壺中有高堂天下無閩風玄

是皆神仙所居一其上台觀一皆珠玉

下애업스니天借問夔州壓何處峽門江腹

擁城隅言峽門江腹擁城隅之處一可以一壓

어는峽門峽門과

峽口二首

峽口大江間西南控百蠻峽口一

控帶고로百蠻夷이로소니城歌連粉堞岸斷更青山堞

士詩十三

音磔 | 니城上女牆 | 라 〇城 | 가 옥하니
해연 | 니 냇고 물두들기 그 초니 在 프른

로미다히 開關當天險防隅一水關 之開關은 天地
初라

邊開關에 防戌 〇 險하리 當하얏니 亂離
〇

聞鼓角秋氣動衰顏 亂離에 鼓角 소리는
〇

근하츨뉘
우하다

時清關失險世亂戟如林 時節은 亂關
〇

어즈러운 戰 去矣英雄事荒戎割據心
〇

指言公孫述하니라 〇 英雄의 이리다 〇 蘆
가니 荒遙하다 버히브 〇 賢현이 이리다 〇 蘆

花留客晚楓樹坐猿深
고고천머드렛노나
그넷나조히모심남

기핀안작노나비
瘦爾煩親故諸侯數賜金
은

病劣貞
라甫
自註
主人栢中丞
類分
月俸
호는다
○시드러
우에親故
문어즈러

이호노나諸侯
조金은주는다

黃草

黃草峽西船不歸赤甲山下行人稀
黃草峽

州
호고赤甲山
은在夔州
호다
이亂
호야
호
문나리나라
○黃草峽
西人
티귀
비도
라오

다아나호는나赤甲山人
아
秦中驛使無消息
래도날사리미드므도다

息蜀道干戈有是非秦中 驛으로 蜀道

애사호문을하여 萬里秋風吹錦水 誰家別

疾濕羅衣 萬里에 錦水를 부는

지는 고지 莫愁劍閣終堪據 聞道松州已被圍

松州被圍는 指往日吐蕃之事이니라 此는

言勿慮劍閣之險 為叛逆의 所據 不足恃

니 所以戒後人之戒也 松州도 호마 他류을 이브니라

南楚

南楚青春異暄寒早早分이고南楚이일더

南楚애프른보미다르니無名江上草隨意

嶺頭雲일흠업스닌고름우희프리오제正

月蜂相見非時鳥共聞正月에버리름서르

귀새소리르다杖藜妨躍馬不是故離群老

病京야버데가덕못하디위非故意離群也

예妨害하란뒤만덤이부러

南極

南極青山衆西江白谷分南極에 푸른모히

도리다 古城踈落木荒茂密寒雲넋城엔디

괴고거촌防戍고노던시歲月蛇相見風飈

虎忽聞하대비야물長常보리로소나비

다近身皆鳥道殊俗自人群모애갓가몬거

로차르미몹하얏도다 의소리를문드시드르리로

照夕曛睥睨上城上女牆라旌은夜者

○睥睨엔슬은擊旌은갓고旌亂離多醉

尉愁殺李將軍將軍李廣射獵霸陵亭嘗夜

離醉尉呵止宿廣亭下亂

다

分類杜工部詩卷之十三

...

...

...

...

...

...

...

...

分類杜工部詩卷之十四

樓閣古詩四首 律詩三十五首

越王樓歌

緜州州府何磊落顯慶年中越王作顯慶은

年號 | 太宗 | 子越王貞 | 為緜州刺史

하나라作은起也 | 緜州入州府 | 不

모노平니顯慶히스이에 | 孤城西北起高樓碧

越王 | 孤城西北起高樓碧

瓦朱甍照城郭외리원城人西北터니노은樓

와블은근지비기슬기 | 樓下長江百丈清山頭落

城郭애비취엇도다 | 樓下長江百丈清山頭落

日半輪明

百丈은 문기 피르니 니루니라 ○樓아

노히노半글
에북도다

君王舊迹今人賞轉見千秋萬

古情

君王의 넷자 최론이 셋사 루미賞玩
노니千秋萬古 옛브들고 장보리로나

西閣曝日

凜冽倦玄冬負暄嗜飛閣

冬日에其神 一玄
冥故로曰玄冬 一

이라○서노호문玄冬은又가다니義和
히티원비출저서노는지분즐기노다니義和

流德澤顓頊愧倚薄

義和는日御 一
은冬神也 一
라倚薄은

附著也 一
니顓頊 一
브티슈를붓그리노다

毛髮具

自和肌膚潛沃若

沃若 은 티운 양 조를 나르니라

溫和 하니 순히

太陽信深仁衰氣歟有托

太陽은 日也 | 라 | 히 친 실로 仁愛 호이 기 프니 늘근 기 운에 문드 시 부 투미 잇노라

歎傾煩注眼容易收病脚

티운 氣運 | 바취니 허투물수이 가

도 힐글시라 | 기 우려 어즈리 이 누늘빨 | 아 보고 습사 리 病 昏 허 투물 가 도 혀 노라 流

離木杪猿翻僊山顛鶴

이 猿 鶴 | 나리 氣運 | 티우물 갖기 호는

양 조를 나리라 | 나 못그테 나 비 朋 知 苦 | 히 여 져고 외트 鶴 | 나 못그테 나 비 朋 知 苦

聚散哀樂日已

作 락 받 들히 심히 모드 락 흐르 락 호니 슬프며 들기 우미

날로 하마니 卽事會賦詩人生忽如昨

古來遭喪亂賢聖

盡蕭索 胡為將

暮年憂世心力弱

何獨憂世而至於心力弱也

드라이 하

水閣朝霽奉簡嚴雲安

東城抱春岑江閣隣石面

매지 본돈 알 풀
이 웃 흥 샷 도 다
崔嵬 晨雲 白朝 旭射 芳甸

아 촌 구 루 이 희 기 아 촌 히 비
치 곧 다 온 근甸 에 소 샷 도 다
雨檻 卧花叢 風

沐展書卷
비 오 는 軒檻 엔 곧 필 기 누 엇 고
빈 곧 부 는 沐 안 書卷 1 핏 도 나 鈞

簾宿鷺鳥起 九藥流鶯轉
자 닌 하 야 로 비 날 오

藥은 부 비 유 니 노 라
가 는 곧 고 리 유 노 다
呼婢 取酒壺 續兒誦文

選
아 제 집 종 은 블 리 酒壺 를 가 저 오 고
니 이 文選 은 외 오 노 라
晚交嚴

明府 矧此數相見
늘 거 셔 嚴明府 를 사 괴 요
니 흥 문 며 이 조 서 르 보

미 사

晚登灤上堂

故躋灤岸高頗免崖石擁灤水入于渠也 故躋灤岸高頗免崖石擁

開襟野堂豁繫馬林花動鳥啼 開襟野堂豁繫馬林花動

雉堞粉如雉堞 雉堞粉如

雲山田麥無隴城一長一三文一 雲山田麥無隴

春氣晚更生江流靜春氣 春氣晚更生江流靜

猶湧靜猶湧 猶湧

四序嬰我懷群盜久相踵四序 四序嬰我懷群盜久相踵

四時 | 디디가미개 | 오매이렛 | 黎民
니 몹도 | 오래서 | 크물와 | 듣나 | 늦다

困逆節天子渴垂拱 | 言人民 | 困於逆亂 | 未
得垂衣拱手也 | 라 | 百姓 | 逆節의 | 事

田 | 고 | 天子 | 垂拱 | 호 | 渴望 | 사 | 事
所思 | 注東北 | 深峽 | 轉脩聳 | 言甫 | 在峽深險

也 | 라 | 소 | 峽은 | 東北 | 으 | 로 | 브 | 어 | 가 | 衰
老 | 自成病 | 卽官未為冗 | 是 | 官 | 病 | 이 | 衰

元 | 帝 | 妻其望 | 呂葛 | 不復夢 | 周孔 | 妻然 | 諸葛
은 | 必 | 라 | 노 | 子 | 濟世數嚮時 | 斯人

을 | 必 | 라 | 노 | 子 | 濟世數嚮時 | 斯人

를 | 必 | 라 | 노 | 子 | 濟世數嚮時 | 斯人

士 | 詩 | 高

各枯冢

이논 呂葛周孔은 사랑호니 이사르
미분취 죽도다 니르니라 〇時世기

리치던이름더 별헤요 니이사르 미
제어곰근 무더미드 외얏도다 〇楚星南

天黑蜀月西霧重

楚蜀의昏亂은가 조르비니
라 〇楚人비렛南티하느

히어듬고蜀入드렛西
스티雲霧 〇뜻집도다 安得騎鴻鵠迫此懼

將恐

甫也 〇欲騎鴻鵠奮飛而去 〇亦以免恐
라 〇엇테시리곰鴻鵠은타

리노이척코저하
매逼迫하얏도다

登兗州城樓

東郡趨庭日南樓 縱目初
庭 〇鯉趨而過

父閑 | 為兗州司馬 | 一 | 省待故 | 云 | 〇東郡에 | 浮雲連海岱 | 平野入青徐 | 千
 누늘고장보는 | 浮雲連海岱 | 平野入青徐 | 千
 취어미로다 | 浮雲連海岱 | 平野入青徐 | 千
 루은마루와岱山에니 | 〇平 | 〇孤嶂秦
 르은青州와徐州에 | 〇平 | 〇孤嶂秦
 碑在荒城魯殿餘 | 〇平 | 〇孤嶂秦
 所作 | 〇平 | 〇孤嶂秦
 잇고기춘城엔 | 〇平 | 〇孤嶂秦
 多古意登眺獨躊躇 | 〇平 | 〇孤嶂秦
 온아비라 | 〇平 | 〇孤嶂秦
 아머므로라 | 〇平 | 〇孤嶂秦

東樓

萬里流沙道征西過此門流沙一在西極吐蕃之域

使吐蕃及軍行一皆出此西門也

萬里入流沙로가는 길河西人타그로갈사

로미이이門다但添新戰骨莫返舊征魂세오직

外호맏세티오고넷征伐고樓角陵風迥城

陰帶水昏樓에吹角人소리是陵犯

을의차이傳聲看驛使送節向河源호리傳

으로오는使者은보니符節가지
上白帝城二首在夔州于此公孫述

江城含變態한그르一上한그르一四한그르新한그르改變

한그르天欲今朝雨山歸萬古

春한그르英雄餘

事業寒蕩久風塵英雄은 指公孫述也 一라蕩

塵은 兵亂也 一 英雄의 事業 一 取醉

他鄉客相逢故國人술醉호문他鄉엇나

國엇사兵戈猶擁蜀賦斂尚輸秦兵戈

蜀애 賦斂은 오 不是煩形勝涼慙

上詩下

畏損神이느 이 허 형勝호문煩히너져아

擾亂흔시내 精神損害흔가 지후미리라

神라기 피붓그류은精
損흔가 짓노라

白帝空祠廟孤雲自往來公孫述의廟 在

白帝에祠廟 孤雲自往來
江山城宛

轉棟宇客徘徊宛轉은猶周回也
棟宇에

나그내어勇略今何在當時亦壯哉勇猛은

이제어되잇느니오그後人將酒肉虛殿自

塵埃

將酒肉으로祭호니 시라 ○後잇사그기술 고기름가져오니 빈殿엔 흰로도드드

리잇谷鳥鳴還過林花落又開

릿고리새는 우리도로다

나가고수프릿고

다고피뜻다 多慚病無力騎馬入青苔

病호야힘의업서문타프르이 식드러오문해부그리노라

上白帝城

城峻隨天壁樓高更女牆

女牆은城上堞也

하늘石壁을조니樓

江流思夏后風至

憶襄王

夏后는禹이治水호시니라宋玉의 風賦에襄王이遊於蘭臺之宮이

上白帝城

二

有風 | 翾然 | 至 | 此 | 公孫述 | 初 | 恃 | 險

思憶 | 老去 | 聞 | 悲 | 角 | 人 | 扶 | 報 | 夕 | 陽 | 吟 | 吹 | 角

公孫 | 述 | 初 | 恃 | 險

躍馬 | 意 | 何 | 長 | 蜀都賦 | 公孫述 | 躍馬而稱帝

白帝城樓

白帝城樓

江 | 度 | 寒 | 山 | 閣 | 城 | 高 | 絕 | 塞 | 樓 | 城

翠屏 | 宜 | 晚 | 對 | 白 | 谷 | 會 | 深 | 遊 | 石屏

翠屏宜晚對白谷會深遊石屏

을 다 조히對하야
하노리도
하니
憑憑能鳴鴈

輕輕不下鷗
能하우노그
러기
는
선
은
며
어

夷陵春色起
漸擬放扁舟
夷陵

漸
漸
是
峽
州
라
○
夷
陵
에
봄
비
치
니
는
이
니

白帝樓

漠漠虛無裏
連連睥睨侵
睥睨
城
上
文
牆

侵
虛
無
之
裏
니
謂
其
高
也
라
○
아
득
樓

先去日遠峽影入江深
樓
入
比
은
히
계
방
○
에

以亦言八四
七

是
臘破思端綺春歸待一金

金也
欲為資用
思端綺
欲作春衣
待

去年梅柳
去
去年梅柳

意還欲攬邊心
言梅柳
欲開花葉也

意還欲攬邊心
言梅柳
欲開花葉也

白帝城最高樓

城尖徑異旌旆愁獨立縹緲之飛樓

城尖徑異旌旆愁獨立縹緲之飛樓
城一但
峽拆雲

靈龍虎睡江清日抱鼈鼈遊峽

龍虎 | 스 | 을 | 오 | 고 | 이 | 고 | 히 | 扶桑西枝封

斷石弱水東影隨長流此極言樓高之狀

人 | 부 | 가 | 지 | 는 | 구 | 스 | 든 | 해 | 얼 | 깃 | 고 | 弱 | 水 | 入 | 東 | 북

杖藜嘆世者誰子泣血迸空回白頭도 | 트 | 랴

고 | 世 | 를 | 嗟 | 嘆 | 方 | 는 | 니 | 는 | 고 | 귀 | 고 | 디 | 우 | 리

陪諸公上白帝城樓宴越公堂之作

此堂存古制城上俯江郊越公揚素之堂也

未言一

制 | 잇는니 城우희 落構垂雲雨荒階蔓草

茅 | 디는듯흔지오딘雲雨 | 드릿고 柱穿

蜂溜蜜棧缺燕添巢 | 기동들온딘비리하 | 흥야딘

디엇도디 | 坐接春孟氣心傷豔藥稍 | 안사

고은곳핏는가 | 英靈如過隙

宴衍願投膠 | 傷揚素의 英靈 | 已逝 | 如

樂也 | 言陪諸公 宴樂 | 願如 | 以漆投

나 | 가미근하니 | 莫問

東流水注涯未即拋

이는 인생을 추구 재빨리 다 못 할 서 須當 行樂

니름슴구티여 歲月의 물 흐르 드기 수가 물 무리리오 허니 라 東 杼 그로 흘리가 는

므름문디 말로디니 人生 을 곧 버리 디 못 거 니 신 터

城上

草滿巴西綠空城白日長

프른巴西에 고 드 하야 프르 고 원 城

리에 北은 고 나 리에 北은 고 나 風吹花片春動水茫茫

지 片 片 이 오 北은 리 北은 리 위 八駿隨天子群臣從

武皇

同 穆 王 八 駿 宮 中 巡 行 天 下 高 宗 漢 武 帝 亦 巡 幸 宮 中 此 北 代 宗 之

木言

幸陝하리라 ○ 여 등駿馬하리天子하리 遙聞出

巡守早晚遍遊荒하리 巡守하리 遙聞出

해다오
시러노

江陵節度陽城郡王 新樓成하리의 王

請嚴侍御判官하리賦七字句하리어 同

作

樓上炎天冰雪生 高飛燕雀賀新成하리의 樓

高而寒涼也 淮南子에 大厦 成而燕雀 相賀 斗하리다 樓 우하리다 云하리

어름과 눈과 나간 듯하니 노피는 다
저데 새세로 차이 슈물慶賀하는 다 玳石窓宿

霧濛濛濕朱拱浮雲細細輕
雲霧는 어드니

야저젧고블근대공엇브구
杖鉞塞帷瞻具

羨投壺散帙有餘清
漢人宗資杖鉞는 야

冀州刺史는 야命褰帷裳는 다皆比衛王는
다 〇 鉞鉞은 담고帳은 기티쇼매다가름다

고문보는니投壺는 여書帙
自公多暇延

叅佐江漢風流萬古情
暇에 叅佐를 延引는

시나江漢엇風流의
요마萬古엇브다로다

上詩古 上

又作此奉衛王

西北樓成雄楚都遠開山岳散江湖西北樓

지어楚入都邑에雄壯하니山岳二儀清濁

還高下三伏炎蒸定有無言此樓一高壯愈

見天高地下而三伏炎熱은有乎無乎아言其必無也

요미도로노우며는가인니三伏推轂幾年

唯鎮靜夷裾終日盛文儒跪而推轂

言衛王之節鎮也一라鄒陽曰何王之門에不可曳長裾

공이 물오 직 눌 리安靜 하 니 오 웃 기 슬 글
白頭

授簡焉能賦媿似相如為大夫
梁王授簡

日為寡人賦之라 하 다
此는甫自謙也

라 오相如 大夫 노 라 의
能히 지으

陪章留後侍御宴南樓得風字

絕域長夏晚茲樓清宴同
조연기잇기너름나

同호라 디를 朝廷燒棧北鼓角漏天東
漢人高入

漢中而燒絕棧道
하 나 라蜀之西地多雨

士寺古 十二

시 是 鼓 角 人 소 리 是 屢 食 將 軍 第 仍 騎 御

史 驄 此 是 南 自 謂 將 軍 之 驄 馬 也 此 是 南 自 謂 將 軍 之 驄 馬 也

다 本 無 丹 竈 術 那 免 白 頭 翁 言 無 延 年 丹 砂 鍊 服 之 術 矣

未 免 衰 老 也 也 未 免 衰 老 也 也 未 免 衰 老 也

盜 狂 歌 外 形 骸 痛 飲 中 盜 賊 也 外 形 骸 痛 飲 中 盜 賊 也

野 雲 低 度 水 簷 雨 細 隨 風 野 雲 低 度 水 簷 雨 細 隨 風 野 雲 低 度 水 簷 雨 細 隨 風

出 號 江 城 出 號 江 城 出 號 江 城 出 號 江 城

黑 題 詩 蠟 炬 紅 夜 傳 號 令 是 節 度 府 人 也 黑 題 詩 蠟 炬 紅 夜 傳 號 令 是 節 度 府 人 也 黑 題 詩 蠟 炬 紅 夜 傳 號 令 是 節 度 府 人 也

이듬고그를쓰니
 노흔브리름다
 窮 言飲醉如阮籍
 窮途애을오죄미
 기다아나하노라

臺上得涼字

改席臺能迫留門月復光

改席은自南樓로
 移於臺上也

○ 동근고티
 니門의미
 臺 能히아
 雲 雲

霄遺暑濕山谷進風涼

구름
 雲 雲
 雨 雨
 濕 濕
 暑 暑
 遺 遺
 霄 霄

되
 老 老
 去 去
 一 一
 盃 盃
 足 足
 誰 誰
 憐 憐
 屢 屢
 舞 舞
 長 長

늘 거가 매 하 산 슬 리 는 하 니 조 조 음 조
가 른 기 리 호 문 누 어 옛 비 다 기 리 조
何須

把官燭似惱鬢毛蒼
言燭光一照鬢毛
似惱之也
라 오 옛 데

구 특 구 췌 췌 브 른 자 비 리 오 구 민
덕 리 의 세 유 문 하 노 른 이 는 듯 도 가

登岳陽樓

昔聞洞庭水今上岳陽樓
네洞庭人
므를 드

의 오
라 오
吳楚東南併乾坤
吳楚一在洞
夜浮
庭東南하니

此는言洞庭闊遠之狀
南 터 키 때 잇 고 하 는 과 는
日 夜 어 옛 도

다 親朋無一字老去有孤舟
言朋友一無問
訊而但乘孤舟

於此而已니라○親호비디호字스글일월
도입스니늘기
가
의
은
안
비
문
은
도
다
戎

馬關山北憑軒涕泗流北사호비
비
리
關山
人
人

을
비
계
서
는
고
므
를
흔
라
노
다

陪裴使君登岳陽樓

湖闊無雲霧樓孤屬晚晴고리미어우니雲
霧
조
치
잇
고
樓

개요매브오니나
禮加徐孺子詩接謝宣城

徐孺子
豫章人
陳蕃
為太守
設榻待之
自比
謝玄暉
為

宣城太守
宣
城
是
接
對
孺子
의
게
디
으
시
는
니
그
를
謝
宣
城
은
接
對

호
라
雪岸叢梅發春泥百草生
는
잇
는
두
드
는
개

펙
고
부
하
를
인
은
가
敢違漁父問從此更南征
는
들
글
梅
花
|

屈
原
|
放
逐
江
南
이
이
는
漁
父
|
問
之
言
나
南
|
今
南
行
言
면
漁
父
亦
問
也
나
라
○
漁
父

의
무
루
은
구
투
이
違
避
言
야
리
아
일
로
부
터
江
南
은
도
가
노
라

送嚴侍郎
言到
蘇州
言同
登
杜
使
君
의

江樓
言宴
得
心
字
言

野興每難盡
江樓延賞心
다
리
했
興
心
을
미
야
○

歸朝送使節
落景惜登臨
只
只
은
문
하
노
라
|

朝廷으로 가니 使節을 보내노라 稍 稍

烟集渚 微風動襟 微 微히 비스듬히 의복고

위다 重船依淺瀨 輕鳥度層陰 멀기운 비는

層인 곳 높은 곳이다 나가니 檻峻背幽谷 窓

虛交茂林 窓 軒檻 幽深한 표를 벗고

燈光散遠近 月彩靜高深 빛이 흔 遠近에 흐

靜히 잤다 城擁朝來客 天橫醉後參 城은

후엔 參星 窮途衰謝意 苦

調短長吟

窮意 깊은 해는 깃바다 오삼근 윈 此

會共能幾諸孫賢至今

肅宗 自註 杜使君은

다 諸孫은 다 能히 是아 만 亨의 오

不勞朱戶

閑自待白河沉

謂不勞 閑戶 亨야 已見 銀

드문 갓 비아니 亨야 쉬 漢의

七月一日題終明府水樓二首

高棟層軒已自涼 秋風此日洒衣裳

노 昏 積

層層의 軒檻 亨야 절로 사늘 亨나 儻然

欲下陰山雪不去非無漢署香陰山은 匈奴人地名이니

四時州常有冰雪可니라 漢制에 尚書郎이

舍鷄舌香하더니 杜甫為工部郎하니 可以

會香이 인나 큰 오직 滯於 夔峽하야 不能去

耳니라 〇 시는 히 陰山에 누니라 리고 처하

나니 〇 랫香이 입지 아니하느니라 絶壁過雲開

錦繡疎松隔水奏笙簧 夔峽路에 有 錦繡岩

에 디 나가는 구루은 錦繡를 여 리내 엿고 〇 시

긴 소 큰 므를 즈음 〇 시 피 리를 부는 듯하

도 〇 看君宜著玉喬履 眞賜還疑出尚方 葉令

有 神術하더니 每來朝에 雙鳧飛來이늘

舉網得之하니 乃尚方所賜履也 〇 리라 言

上 寺 十六

上 寺 十六

上 寺 十六

上 寺 十六

終明府一如王喬也
喬의 지는 시노미 맛당하니 眞實로 주산기

가 尚方으로 疑心호노라
가도 疑心호노라

宓子彈琴邑宰日終軍棄繻英妙時
宓子彈琴

而治軍父호니 終軍 棄之而去호니
는 關吏與軍繻호니 終軍 棄之而去호니

나 宓子 終軍 繻호니 終軍 棄之而去호니
나 宓子 호니 終軍 繻호니 終軍 棄之而去호니

承家節操尚不泯為政風流今在茲
承家節操尚不泯為政風流今在茲

聲 流布天下 言明府 繼終軍家
業호고 為政之 義호니 如子 賤也

을 니 節操 호니 節操 호니 節操 호니
政事 호니 節操 호니 節操 호니

憐賓客盡傾蓋何處老翁來賦詩上句는言

容也하라 오다 소는 다 蓋를 기 유 리 對接 하니 이 닛 늘 근 한 아 비 와 서 구 를

니 오가 楚江巫峽半雲雨清簾踈簾看弈碁楚

그 림 과 또 峽 에 半 인 구 름 과 비 로 조 나 문 그 산 과 실 관 비 래 서 바 독 장 귀 를 보 노 라

春日梓州登樓二首

行路難如此登樓望欲迷길 터 든 노 매 이 러 우 이 이 근 하 니 樓

외 울 아 비 가 오 니 身 無 却 少 壯 迹 有 但 羈 栖

어 즐 흥 들 도 다 身 無 却 少 壯 迹 有 但 羈 栖 水

上卷 下 卷

流城郭春風入鼓鞞 고름을 든城郭으로 고름

雙雙新燕子依舊已街泥 雙雙

은 새 쥐이네 른브티
하아 흘글므 낫다

天畔登樓眼隨風入故園 하늘의樓의을

戰場今始定移柳更能存 言

園에舊所移種之柳는今更能存乎아○사
호된件하아테비르스안定하니음계삼근

屢蜀交遊冷思吳勝事繁 蜀의

應須理舟 아노는사근의冷호불아침고吳
애도호이리하물스랑호노라

揖長嘯下荆門다양이 모로애 비荆門으로

리관디 다양이 모로애 비荆門으로

登樓

花近高樓傷客心萬方多難此登臨고樓의

方가아難나그하거늘예와登臨고錦江

春色來天地玉壘浮雲變古今玉壘는錦江

壘옛變비古은수에改變고地人址극

朝廷終不改西山寇盜莫相侵終不改는亂

亡也。라。○北極에 朝廷。日。夕。明。고。타。다。
아니。하。리。니。西山。에。盜。賊。등。하。신。은。侵。犯。하。다。

다。말。可。憐。後。主。還。祠。廟。日。暮。聊。為。梁。甫。吟。須。

使。人。云。後。主。亡。國。者。라。何。足。祠。이。라。은。徒。
後。主。를。도。로。하。祭。祀。하。니。可。하。는。프。도。다。

後。主。亦。興。廢。之。感。也。라。○可。하。는。프。도。다。
吟。을。하。라。

題新津北橋樓得郊字

望極春城上開筵近鳥巢
近鳥巢는 樓高호는 城우희

白하花하簷하外하朶하青하柳하

檻前梢

한고조집기
檻

빛기받기
오프

池水

觀為政厨烟覺遠庖

不可撓也
言其澄清
하야

言見厨烟
하야知遠忘厨也
니라
○吳
드

레政治
하요문보리
도소니
브
십
니
예
庖厨

의미로
문西川供客眼唯有此江郊

알리로
다西川供客眼唯有此江郊

내누데
문일기
는오
직

이그
문
郊野
|
앗
도
나

閣夜

歲暮陰陽催短景天涯霜雪霽寒宵

歲暮
陰陽

디
른
하
른
보
아
나
하
나
고
엇

五更鼓角聲

悲壯三峽星河影動搖東方朔曰星辰搖動

○五更에 鼓角소리는 슬프며 壯大하고 野

哭千家聞戰伐夷歌幾處起漁樵미해서우

크란 사흔데 푸근고 드르든 노나 되늘애는 덧

卧龍躍馬終黃土人喜音書漫寂寥卧龍은

오躍馬는 公孫述라 龍은 누어시여물

나사근의 일와 音人信 글월

西閣二首夔州之西閣하나라

大曆元年西閣하나라

巫山小搖落碧色見松林

巫山安 흐느 리 비 리 듀 미 티 그 나 프

프 른 비 출 소 나 다 모 수 百鳥各相命孤雲無自心

르 相 命 은 相 鳴 也 | 라 〇 은 나 짓 새 제 여 공 서

層軒俯江壁要路亦高深

層層인 軒 檻 | 〇 름 石 壁 은 디 렛 나

나 조 〇 로 인 김 도 다 朱紱猶紗帽新詩近玉琴

朱 紱 은 朝 服 | 오 紗 帽 은 隱 士 之 巾 | 나 甫 | 雖 為 郎 而 今 處 閑 散 也 | 라 〇 朱 紱 〇 고

레 오 히 리 紗 帽 른 스 나 새 그 功名不早立衰疾

謝知音 을 일 세 디 못 호 나 늘 고 病 〇 야 〇 知 音

上 十 〇

二

을愧謝哀世非王粲終然學越吟越人莊舄在楚言

야思鄉而越吟言越人思鄉也

라○時世를슬하호은王粲以此思故鄉也

비매越吟을라越吟言

懶心似江水日夜向滄洲言欲優遊江海也

○滄洲로向호야가나다不道含香賤其如明府詩註言負

鑷白休舍香은見前終明府詩註言負

나何耶호香은의음는비스리果賤호는
그엇티經過凋碧柳蕭索倚朱樓프른나오대

리 비려디는니 蕭索히 畢娶何時竟消中得

自由 向子平曰男娶女嫁 猶自得 畢고 斷家事 子息姻

娶 只 疾 一 어니 시러 吾自由 消中 豪華者

古往服食寄冥搜 服食은 服仙藥也 冥 幽之處

也 言豪華도 오직 古人之 自嘆之詞 一 搜 藥 一 冥 搜 호미

自嘆之詞 一 搜 藥 一 冥 搜 호미

보 詩盡人間興 無須入海求 興을 다 짓고

바 근래 드려 求 호미 조처 도로 애 호리라

夜宿西閣曉呈元二十一曹長

城暗更籌正城漏也樓高兩雪微城也

稍通綃幕綃幕天霽之色雲齊遠帶玉繩稀玉繩星

名 | 綃幕 | 天霽之色 | 如綃也 | 玉繩 | 星

繩繩也 | 通 | 玉 | 門鵲晨光起鵲 | 檣烏

宿處非檣鳥 | 檣上 | 刻為鳥形 | 占

寒江流甚細有意待待

人歸人歸也 | 意 | 待 | 人 | 歸

을로 이甚히
오물기 들오는
나사르
다
안도
다
고
고
고
고

西閣口號呈元二十一

山木抱雲稠
寒空統上頭
아외
나히
니
치
운
虛

空은 머리
유희
의
雲崖纒變石
風慢不依樓
구

신비래는
아
아
라
들
히
改
變
고
고
비
름
社
稷

堪流涕
安危在運籌
流言思社稷
之危則堪為
大臣

의運籌如何耳
나
나
○社稷은
나
고
물
을
럼
지
고
니
便
安
고
며
바
드
라
오
문
運
籌
호
매
인
스

州看君話
王室感動幾
消憂
그
디
의
王
室
人
이
고
고
고
고
고

感動고동 言언야 몇몇비늘 感감동 言언야 몇몇비늘 感감동 言언야 몇몇비늘

西閣夜서각야 西閣夜서각야 西閣夜서각야 西閣夜서각야

恍惚寒山暮 遙遙白霧昏 遙遙長遠也 恍惚寒山暮 遙遙白霧昏 遙遙長遠也

雲霧 山虛風落石樓靜 月侵 山虛風落石樓靜 月侵 山虛風落石樓靜 月侵

門靜문정 門靜문정 門靜문정 門靜문정 門靜문정 門靜문정 門靜문정 門靜문정

可憐子無衣 何處村 擊柝 可憐子無衣 何處村 擊柝 可憐子無衣 何處村 擊柝

○ 斫차두드르리 斫차두드르리 斫차두드르리 斫차두드르리 斫차두드르리 斫차두드르리 斫차두드르리 斫차두드르리

百慮盜賊爾 猶存유존 時節시절 危위亂란 百慮盜賊爾 猶存유존 時節시절 危위亂란 百慮盜賊爾 猶存유존 時節시절 危위亂란

이러니盜賊아네
오히러잇는다

宿江邊閣

眞色延山徑高齋次水門
아되비치밧길혜

지분문門에薄雲巖際宿孤月浪中
아름렛도다翻얼은

은바회고의셔자고외로원들비鵲鶴追飛
촌문밧가온디터두위이노다

盡豺狼得食喧
上句는 喻軍士 下句는 喻盜賊

바르물다하니豺狼은不眠憂戰伐無力正
바블어더셔수으는다

乾坤
時有崔肝及吐蕃之亂하니라○조오

上詩古
三

은고틀히
미업세라

西閣雨望

樓雨霑雲幔山寒著水城

樓잇비는구름고
帳을저지고밧

치위논
에브릿도다

徑添沙面出湍減石稜生

문결해
을

러모래두프
석니므릿돌

모히배와
고湍流

고은히
터으

니몰앳面
리석니돌모
히나눗다

菊蕊凄踈放松林駐

遠情

遠情은
後凋不變
라○菊花人
蕊는

프른먼
머므릿도다滂沱朱檻濕萬慮倚筇櫺

滂沱
는雨

負一라。滂施호미 불근軒檻수취조
니한혜아료로簷楹을비겨쉬슈라

不離西閣二首

江柳非時發江花冷色頻
아랫버들나피

고고르옛고지서地偏應有瘴臘近已含春
늘흔버찌조도다

하하기프니당당이더잇病잇도다臘
日기갓가오니하아북氣運을머갓도다失

學從愚子無家住老身
관어린아드글르던

히더그노나지본늘근不知西閣意肯別定
몸어드려실뒤업도다

留人
아지못하리르다西閣人쓰든여하요
물즐길나一定하야사르물머를을가

此亦在函同

三度下

問子能來宿今疑索故要子是指明府疑南

의故要之人을보라간가호약오디아리하
드나호는아리과○그디터부리能히아하

드문다니이제나를번어匣琴虛夜夜手板

自朝朝言期而不來故도夜夜어廢琴不撫

也나라○匣인기문고가지고밤아다虛히
이유나手板가자고스나로아참아다드니

夕金吼霜鍾徹花摧蠟炬銷鍾鳴而炬銷則

府기들유를제도룩을시라○디우르니서
리옛봄소리스口차웃늦나고지물어디니

미으로흔부早鳥見江檻底雙影漫飄飄早鳥는
리스늦아

七詩五

五

爲事_고하니_나此_는明府_一不來故_로去_去漫飄飄
一_가하_다○이_로을_하고_고長軒_檻人_이의_의두
그_트에_속절_업
사_나빛_리늦_다

草閣

草閣臨無地_樂靠永_不關_업는_노나_온지_미의_의
선_선나_모門_을지_리魚龍_回夜_水星_月動_秋山

선_선나_모門_을지_리魚龍_回夜_水星_月動_秋山

고_기과_龍과_는밤_으래_도가_오고_夕露_晴初

濕_高雲_薄未_還고_나외_의슬_은바_다히_어일_히지

하_아나_泛舟_慙小_婦飄_泊損_紅顏_慙小_婦는_고고_대사

디 못호은 못그림 시리 ○ 리벽 위 드쇼 매 지
지 불 못그 리노 니 두루 든 니 브 리 슈 매 지
나 치 디

眺望 律詩九首

陪鄭公秋晚北池臨眺 嚴武 封鄭

北池雲水闊 華館闕秋風 北池 嚴武 封鄭

地 獨鶴元依渚 衰荷且映空 地 獨鶴 元 依 渚 衰 荷 且 映 空

寒 採菱寒刺 寒 採 菱 寒 刺

上踏藕野 沈中 刺 即菱之刺也 上 踏 藕 野 沈 中 刺 即 菱 之 刺 也

蓬
中
素
楫
分
曹
往
金
盤
小
徑
通

曹乘之而採菱也
徑而來也
金盤
盛饌
小
徑
而來也
採菱也

盤
紅
旗
晚
酒
盃

旗
紅
鄭公의 旌旗
晚酒
盃

露
津
吏
衣
棠
與
釣
翁
亦

露
津
吏
衣
棠
與
釣
翁
亦

高
桐
映
日
紅
菊
故
里
亦

落
關
山
思
淹
留
戰
伐
功

出郭

霜露晚凄凄高天迤迤低遠烟蓋井上斜景雪峰西故國猶

兵馬他鄉亦鼓鼙

故國也 他鄉也 鼓鼙人

江城今夜客還與舊為啼

此感天下

鳥俱啼其憂國之心一深矣

城也

灤西寒望

水色含群動朝光切大虛

水色也 朝光切大虛

年侵頻悵望興遠一蕭疎

年侵頻悵望興遠一蕭疎

句上

侵逼也 故鄉也 興遠一蕭疎

出清江望暄和散旅愁
물고고금물비라오
니히동스니덥고溫

和호마나그내시르春城見松雪始擬進歸
물호티비리노라

舟봄城에소남갓눈을보고도라갈
비를나오고저비르서녀기노라

野望因過常少仙

野橋齊度馬秋望轉悠哉
디엇다리고즉호
디모를간내야

竹覆青城合江從灌口來
은히비라오니
가장머도다

入村樵徑引嘗
은두피모맛고고
은도부조차오낫다

果栗園開
은히드로기나모지는길호노
사가고果實를맛보노다하야밤

上寺
三

나 못 위 안 **落盡高天日** 幽人未遣回 노은하
노은하

아보게는
아보게는 幽人 히여
히여 公
多

野望

清秋望不極 迢遞起層陰 오물고그은히
오물고그은히 日

아우미라히여리
아우미라히여리 遠水無天淨 孤城隱霧

深 城은무른하늘와
城은무른하늘와 燕 야조코외
야조코외 葉稀

風更落山迥日初沉 九月에
九月에 秋風 물
물 落

아미라하하
아미라하하 獨鶴歸何晚

昏鴉已滿林

此는 喻君子退而小人 一競進

의 데 티 티 니 오 어 으 름 어 가 가 비 하 아 수 프 레 니 어 두 하 앓 도 가

野望

金華山北涪水西仲冬風日始淒淒

金華山

涪水西人曰의仲冬에日

山連越嶠蟠三蜀

水散巴渝下五溪

鶴는 음 籠 一 라 〇 의 〇 越 鶴人 구 을 헤 니 옛 三 蜀 에

五溪로고 무 료 巴渝에호리

獨鶴不知何事舞

飢鳥似欲向人啼

호오 飢鶴은 아 디 못 하 리 로 다 브 스 일 로 추 六 나

오 주으린 가 마 괴는 사 근 물
向 亨 야 을 오 저 흥 는 도 도 다
射 洪 春 酒 寒 仍

綠 極 目 傷 神 誰 為 藥
射 洪 縣 有 藥 山 曰 射 洪 山
是 射 洪 縣 也 其 山 曰 射 洪 山

장 曰 라 며 精 神 是 藥 也
此 為 藥 也 射 洪 山 曰 射 洪 山

野望

西 山 白 雪 三 城 戍 南 浦 清 江 萬 里 橋
西 山 白 雪 三 城 戍 南 浦 清 江 萬 里 橋

은 在 蜀 亨 니 此 是 野 望 人 所 見 一 山
此 是 野 望 人 所 見 一 山 曰 西 山

은 萬 里 人 曰 海 內 風 塵 諸 弟 隔 天 涯 涕 淚 一
海 內 風 塵 諸 弟 隔 天 涯 涕 淚 一

身 遠
四 海 皆 然 此 是 野 望 人 所 見 一 山
身 遠 四 海 皆 然 此 是 野 望 人 所 見 一 山

唯將遲暮供多病未有涓埃答聖

朝消涓小流川涓埃喻細小也一라○오

跨馬出郊時極目不堪人

事日蕭條보나사근미아리나날蕭條호문

이리르다

亭榭古詩三首 律詩八首

陪亭北海宴歷下亭亭一在齊州하나라

東藩駐皂蓋北渚凌清河東藩는指青齊리

詩石

亭 | 藏蓄真趣 하야 欣愜 남의 所遇 하니 其
如興未盡而日已西 靚 何 우 其趣 를 也

려 셔 內 만나 매 마 주 니 디 는 는 貴賤俱物後從

公難重過 貴후미 賤 흔 尙 가 尺 미 多 物 物에 브리

어 디 나 오 미
러 립 도 오 다 미

登歷下古城負外孫 의 新亭 하 亭 | 對

鵲湖 하 湖 니 時 에 李之芳 | 自尚書郎 로

出齊州 하 特制此亭 하 北海太守李 邕

吾宗固神秀 體 物寫謀良 吾宗은 指之 芳 言能體物景 하

光 四大言四方見日月星辰之迭為出

入也 리 리 ○ 含容 이 이 위 기 四方 그
를 알 리 로 소 나 나 이 드 는 세 비 출 보 리 는

다 負郭言粳稻安時歌吉祥 見負郭粳稻

為安樂之祥而歌咏之也 가 ○ 城郭
은 져 는 비 글 기 는 나 便安 言時節의 吉祥

호 물은 日 르 노 라

同李太守登歷下古城負外新亭

新亭結構巖隱見清湖陰 新亭子 지 우 들 只

늘 해 그 르 데 隱 迹藉臺觀舊氣溟海岳深 此

흔시 梁南 吟을 시
리 吾 燕 亨 노라

滕王亭子二首

君王臺榭枕巴山 萬丈丹梯尚可攀

君王臺榭

巴山은 벼엿누니 萬丈인 불근도리

春日鶯

啼脩竹裏仙家犬吠白雲間

플불나래서곳고

리을오神仙의지비힌다

清江碧石傷心麗

嫩藥濃花滿目斑

麗호애무수물슬후니브

드라온곳부리와들기온고조다
르누근거시눈에
다후안도다
人到于今

章梓州水亭

城晚通雲霧亭深到菱荷
城人나조히雲霧亭

子기피菱荷人지
吏人橋外少秋水席邊

多吏人이두리밖이적고
近屬淮王至高

門薊子過
甫自註漢中王과道士席謙

王이왔고門地노은
荆州愛山簡吾醉亦長

歌山簡으로比章梓州
醉하야셔도기리

늘래브
르노라

登牛頭山亭子

路出雙林外亭窺萬井中

井은市井也

가로났고亭子는萬井江城孤照日山谷遠

舍風

고릉城에외로이히비취고兵革身

將老關河信不通

兵革이리예모이將次人

猶殘數行淚忍對百花叢

오하러두

리기타나니온이짓곳피

題鄭縣亭子

鄭縣亭子澗之濱戶牖憑高發興新鄭縣人

與此內此興心多戶端一上云斷嶽蓮蓮

臨大道天晴宮柳暗長春岳蓮是蓮花峯也

다라○구루미그즈니蓮은은은모하큰길히

도드릿巢邊野雀群欺燕花底山蜂遠趁人릿

미릿외외했버른머리사르문조차오노다更

欲題詩滿青竹晚來幽獨恐傷神이노다시

클서다가나조히傷神흐가저히나라○佐

그를서프른데에고고저간마른나조

精神을 슬흘가진 노라
精神을 슬흘가진 노라

重題鄭氏東亭

華亭又翠微秋日亂晴暉
山不及上日翠微

翠微에 드러나니
山朋石歌山樹清

漣曳水衣
水衣는苔也

紫鱗衝岸躍蒼隼
隼

巢歸
巢歸는애는기슬
巢歸는애는기슬

向晚尋征路殘雲傍馬飛
向晚尋征路殘雲傍馬飛

구루미라를
보타는다

泊松滋江亭

紗帽隨鷗鳥扁舟繫此亭

紗帽스고문더기
문조차와적근비

江湖深更白松竹遠還青

江과湖
외잡고

一柱全應近高唐莫

一柱觀은在江陵고高唐觀은在巫
峡고다○一柱一全히당당의맛가오

今宵南極外甘作老人

星
此老人星은甫自謂也라○오느라밤
南極人맛기와老人星은외야슈물드르히

노니
라기

江亭

坦腹江亭暖長吟野望時

비글의혜이쇼매
그름亭子다우

니기리이퍼셔드르
흔빈라논백로다

水流心不競雲在意俱

遲

므른흐르기늘내
느니구루미이사기
므음은도다아나
디다타타도다

寂寂春將晚欣欣物自私

과외흔봄이將次
나나조히깃하

아萬物은제이
아함드외도다故林歸未得排悶強裁詩

태수고리도
물미러비리노라고
得디못호니
바쁘가온
짓노라

分類杜工部詩卷之十四

今觀其正德書卷之二十四

Table with multiple columns of text, likely a list or index. The text is extremely faint and illegible.



